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6월 16일)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예천군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한 뒤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해병대 제1사단을 찾았다. 예천스타디움에 마련된 지휘통제실 앞에서 해병대 제1사단 박상현 대령과 악수하며 격려의 말을 전하는 진우 스님. 스님 뒤로 김학동 예천군수도 함께 했다. 사진=윤호섭 기자

한국불교 一心으로 수해지역에 '자비 손길'

조계 · 천태 · 태고종 등 성금 기탁 · 희생자 천도재

조계종, 경북 · 예천에 2억 원
천태종도 지원…봉사자 격려
태고종 '희생자 천도재' 계획
동국대는 피해학생에 장학금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폭우가 한반도를 덮쳐 충청 이남지역 곳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해 한국불교가 팔을 걷어붙였다.

가장 먼저 최근 취임 300일을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경북 예천군으로 달려가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 · 경 등에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7월 25일 오전 예천군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학동 예천군수를 만나 현장 복구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스님은 지자체장으로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김학동 군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그간의 고생을 위로했다.

진우 스님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간략한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뒤 수해 복구 성금 1억 원을 경상북도에, 1억 원과 3000만원 상당의 식료품 · 생필품을 예천군에 전달했다. 성금은 아름다운동행 모금을 비롯해 이날 조계종 5개 교구본사(용주사 5000만원 · 직지사 3000만원 · 불국사 3000만원 · 은해사 2000만원 · 고운사 1500만원)가 힘을 보태 마련됐다. 또한 국제선센터는 수건과 칫솔 · 치약, 비누 등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했다.

진우 스님은 전달식에서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려 했는데 비가 계속돼 예정보다 늦어졌다. 희생자들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의 아픔에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가 어서 복구돼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종도들이 마음 모아 작게나마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천재지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지사와 군수님을 비롯해 예천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역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로 입을 뗀 김학동 군수는 "산악지역 안전을 위해 있는 댐 3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유실과 농경지 침수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저지대 10개 마을이 휩쓸리고 그 중 7개 마을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하루 빨리 복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천군에 따르면 예천 북부지역은 6월 말부터 보름 동안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졌을 때 물폭탄이 쏟아졌다. 수해복구를 위해 지역 공무원은 물론이고, 해병대 제1사단까지 투입돼 실종자 수색과 가옥 · 창고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우 스님은 해병대 제1사단 지원 캠프가 자리 잡은 예천스타디움을 방문, 해병대원들을 격려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을 동원해 1300여 명의 장병들이 복구에 전념하고 있다는 박상현 대령의 보고에 진우 스님은 "마음이 울컥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군장병이 국민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늘 힘썼다"면서 "지자체의 지원으로 큰 불편 없이 복구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힘든 일"이라고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예천군 방문에는 용주사, 직지사, 불국사, 은해사, 고운사 주지스님과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이 함께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은 27일 예천군청을 찾아 긴급구호 성금 5000만원을 김학동 군수에게 전달했다. 산하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는 쌀과 의류, 수건, 담요 등 3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덕수 스님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며 "하루속히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태종복지재단은 피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에 나선 예천대대 소속 군장병 150여 명의 석식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진행했다. 덕수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스님들은 전달식 후 군부대에 방문,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21일 '수해피해 참사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발표하고 "대승교화 종단으로서 가족을 잃은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전국 각 사암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백중 천도재를 함께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고종은 수재민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사암마다 수재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자비나눔의 보살도를 행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재난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 중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반도 평화에 남북 대화 필요"

종지협, 정전 70주년 메시지 발표
달라이 라마도 한반도 평화 기원

국내 7대 종교 대표자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 기원 메시지를 발표했다.

종지협은 7월 27일 발표한 정전 70주년 평화 메시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기원하며'를 통해 "7대 종교 대표들은 남북 당국이 한반도의 긴장 해소와 평화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종지협은 그동안 남북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 △4.27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화해와 통일을 향한 평화의 길을 닦아왔다고 강조했다.

종지협은 이어 "우리민족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차원의 교류 협력, 특히 종교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 재개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당국 회담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티베트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24일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됐을 때 저는 스무 살도 되지 않았다. 지금은 88세로 지난 수년 동안 세계 각지의 젊은 지도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려는 그들의 결의를 전적으로 지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무기에 의존하거나 무력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반도의 모든 주민이 평화와 번영,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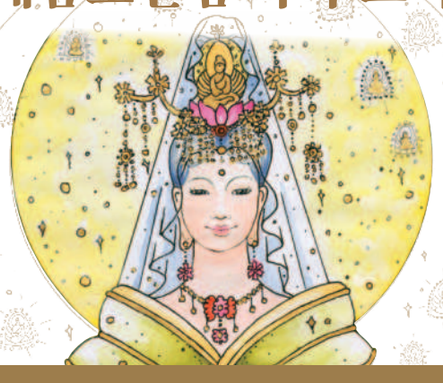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도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전 70주년 종교인 평화선언'을 개최했다. 평화선언에는 불교에서 조계종 전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조계종 전 포교원장 지홍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종교인들은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의 파국을 막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절박한 호소를 국민 여러분과 세계에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여름 휴가로 다음 주 휴간합니다.

인도의 종교와 철학의 역사
인도사상사

깊이와 재미를 함께 갖춘 인도 사상 입문서!
오랜 세월 인도인들의 삶 속에 스민 문화, 종교, 철학, 영성 등을 이해하기 위한 뼈대를 상세하면서도 쉽게 보여준다.
존 M. 콜러 지음, 허우성 옮김/신국판/양장/792쪽/값 55,000원

관세음보살님 따라 그리기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 컬러링북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과 42수주 진언을 그리고 외움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불보살의 가피를 받게 된다.
조미애 그림/국배판/무선/72쪽/값 14,000원

周易禪解
우익지욱 선사 『주역선해』의 현대적 강설!
우익지욱, 『주역선해』를 통해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다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철학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주역선해』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해설을 붙였다.
우익지욱 저, 최세창 강설/신국판/512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취임 300일 진우 스님, '청년 소통' 광폭 행보

7월 24일 부산 쿠무다 콘서트홀서 청년 대상 '불교 문화 토크 콘서트'

부산 · 글=신성민 기자, 사진=이도경 부산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4일 취임 300일을 맞아 부산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문화 토크 콘서트에서 명상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우 스님, 명상 수행 중요성 강조
"苦樂 분별 놓는 것이 불교의 성불
하루 1~5분이라도 명상해 보세요"

청년 합장 등 다양한 공연 진행돼
지역 불교 리더들과 108배 정진도
7월 25일엔 예천 수재민 위로 방문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7월 24일 쿠무다 콘서트홀서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문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지금 괴로운가요? 괴로움과 즐거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 총량도 같죠. 결국, 우리가 괴로움을 내려놓으려면 즐거움, 괴로움이라는 '분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별'을 내려놓는 훈련,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진솔한 이야기가 강연장을 울렸다. 좌석을 메운 20~30대 청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KUmuda, 이사장 주석)는 7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지하1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문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 토크 콘서트는 진우 스님의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300일을 맞아 열린 것으로, 최근 한국불교계의 화두가 된 '대학생 · 청년 전법' 진흥을 위한 진우 스님의 '광폭 행보'이기도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이오상 KNN 대표, 노찬용 성심학원 이사장,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하고 영화 '변호인'의 양우석 영화감독이 사회를 맡은 이날 문화 토크 콘서트는 명상과 문화 포교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진우 스님은 이날 자리한 2030세대에게 명상수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진우 스님은 우리가 명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부터 알아야 함을 역설했다. 스님에 따르면 의식의 구조는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전5식 · 6식'과 아상의 집착심인 '7식 말라식', 근본의식인 '8식 아뢰야식' 등 8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의식과 감정을 갖는데, '정'이 있는 사람을 '유정'이라고 하며, 이를 뛰어넘으면 부처가 된다는 게 진우 스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차생고피생 차멸고피멸(此生故彼生 此滅故彼滅 ·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을 상기시킨 진우 스님은 결국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임을 분명히 했다.

진우 스님은 "이것과 저것, 큰 것과 작은 것, 일출과 일몰, 생과 사 등 사바세계의 모든 것은 두 개로 이뤄져 있다"며 "일출 예정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일몰 예정 시간이 있다는 것"이라며 "즐거움과 동시에 괴로움 역시 예정돼 있는 것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그 질량이 같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락(苦樂)의 반복이 곧 윤회다. 삼선도, 삼악도가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삼선도와 삼악도를 오간다"면서 "격하게 끓어오르는 고락의 반복을 줄여 나가는 수행이 바로 '명상'"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가 말하는 '성불(成佛)'이 '분별'을 내려놓는 것임을 밝히며, "내려놓은 그 순간에 곧 '중도'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들에게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감정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방하착(放下著)'하는 명상 수행을 해볼 것을 독려했다.

진우 스님은 "명상의 목적은 고락이라는 정을 최소화시키고 차분하게 하는 것"이라며 "내 자신이 삼독심에 빠지지 않도록 참선이든 염불이든 행선이든 명상 수행을 해보길 바란다. 분별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요즘 유행한다는 멍때리기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에 1~5분씩 명상을 해봐라.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진다"면서 "명상은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야기 손님들은 불교와의 인연 · 신행담과 불교 진흥을 위한 제언들을 내놨다. 특히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세계적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에게서 한국불교와 대학사회의 돌파구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우연한 기회에 BTS의 'Answer: Love Myself'를 듣게 됐다는 부 총장은 "노래가 기승전결의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임을 고찰하다가 종국에는 '나는 누가 뭐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한다. '러브 마이 셀프(Love Myself)'는 BTS가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불교의 법당 · 선방과 와 대학의 강단에서 말했던 화두 · 명제를 2030세대 또래인 BTS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불교도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면 분명 세대를 뛰어넘는 포용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문화 토크 콘서트는 조윤성 재즈피아니스트의 연주, 청년 불자들과 함께하는 찬불가 공연 등도 함께 진행됐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300일을 맞아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과 청년 불자들이 함께하는 오늘 문화토크콘서트는 불교가 '문화'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라며 "오늘 콘서트로 불교가 문화를 통해 대학생 · 청년 세대에게 치유와 희망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축사를 통해 "기성세대들에게는 신심을 증장시키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불법의 인연을 맺도록 하는 포교는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며 "이번 문화콘서트는 문화예술의 공간 쿠무다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행복을 발원합니다" 300일 이어진 '108배 정진'

진우 스님 '격외의 정진', 쿠무다 하늘법당서 108배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기원 호우 희생 · 피해자 위한 위로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00일차 108배 정진을 7월 24일 부산 쿠무다 8층 하늘법당에서 진행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 후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 수행을 이어오며 불교수행문화 확산과 국민 행복 발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대학생 및 청년들과 진행할 문화콘서트에 앞서 진우 스님은 먼저 쿠무다 하늘법당을 찾아 참배했다. 108배 정진에는 진우 스님과 함께 방문한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을 비롯해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 쿠무다 대중들이 동참했다.

진우 스님은 108배 정진 후 대중을 향해 소감과 함께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법에 따라 우리는 부처를 이루어야 하며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육바라밀 실천과 수행을 통해 맑아져야 한다. 번뇌 망상을 털어내고 백팔 번뇌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로 매일 108배를 하고 있다. 모든 대중들이 함께 실천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108배 수행의 목적을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함이라 전했다.

진우 스님은 "108배 수행의 또 다른 목적은 나라의 발전이다. 국민들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기를 염원에 담았다. 지금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고 희생된 분들이 있다.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함께하고자 한다"며 "특히 부산은 저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특별한 도시이다. 부산 엑스포가 줄 경제효과와 파급력은 부산을 경제 도시, 문화도시로 성장하도록 돕는 발판이 될 것이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정성을 기울여주셔서 엑스포가 유치되도록 성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08배를 통해 엑스포 유치를 기원해주시고 수해 지역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부산이 화평하고 정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모아 주신 정성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중들은 5층으로 자리를 옮겨 차담을 진행했다. 차담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37대 집행부 스님 및 박형준 부산시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강관범 53사단장, 노찬용 영산대 이사장 등이 동참했다.

내빈들이 차담을 위해 자리에 앉자 어린이가 나와 편지를 전달하며 진우 스님의 방문을 환영했고, 진우 스님은 어린이가 전달한 편지를 직접 읽으며 환영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도 전했다.

108배 정진 후 전한 소참법문에 이어 진우 스님은 부산 불교박람회 개최를 통한 불교문화 진흥과 K-명상을 통한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서울에서는 매년 불교박람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30만 명 이상이 참여해 관심을 보이는 수준 높은 불교 문화 박람회"라며 "한자리에서 수준 높은 불교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부산에서도 박람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불교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리면 좋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문화재 및 사찰 관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00일차 108배 정진을 7월 24일 부산 쿠무다 8층 하늘법당에서 진행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입불·유지·와불…열암곡 마애불 최적 보존방안은

경주시 · 한국건설기술硏 등 마애불 보존방안 최종보고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중점 과제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의 입불(立佛) 등 보존 방안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열암곡 마애불의 입불부터 현상유지, 절충안인 와불까지 다양한 보존방안이 소개됐다.

경주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한국건축역사학회는 7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보존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마애불상의 입불과 보존방안을 1년 3개월 동안 연구 용역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한국건축역사학회의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을 경청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책임 연구자 중 한 명인 이광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애불상의 원위치와 방향, 거동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마애불상의 본래 위치를 조각된 대형 암반과 인접 지역 암반들을 비교한 결과 현 위치에서 큰 이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조성 당시 참배자가 마애불상의 존엄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조각했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참배 위치는 현재 마애불상에서 13.5m가 이격된 곳에 존재한다. 마애불상이 하부 계곡을 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참배자의 위치는 현재 보강 석축 높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참배했을 것"이라고 봤다.

마애불상이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는 "고부조가 가능한 수직절리는 동-서 방향,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는 암벽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마애불상의 원 자세는 서쪽을 바라보는 형태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애불상의 입불 방안에 대해서는 슬링벨트를 활용한 안이 제시됐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슬링벨트 1, 2, 4개와 지그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슬링벨트와 지지하는 설비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동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마애불상을 기중할 설비가 더 많이 설치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시나리오는 마애불상의 거동에 필요한 슬링벨트와 철골 지그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하다"면서 "여러 간섭 요건을 제거하기 위해선 인양 전에 불상 주변부 지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수 한국건축역사학회장(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은 마애불상 일원의 보존 방안으로 입불을 비롯해 현상유지, 와불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현상유지와 절충안인 와불은 확실한 역사적 근거가 없는 수리 및 복원 지양한다는 장점이 있고, 입불은 시대적 특징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면서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여러 관계기관과 불교계가 의견을 공유해 어떤 방안이 가장 현 시대의 효율적 방안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교수는 남산 열암곡 일원 불교사원 터의 중장기적인 복원 로드맵에 대해서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열암곡 일원의 불교 유물과 유적들이 당시의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등 다양한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총체적 유산"임을 강조하며, 이 같은 가치를 담아내는 복원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 회장은 △기초-기본연구(1~2년) △심화연구(3~4년) △실행단계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열암곡 일원 사찰 영역 발굴 및 유구 정비와 입불 모의 실험, 활동 콘텐츠 개발 등을 제언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2028년까지 경주 남산 열암곡 일원에 '남산 불교사찰 종합전시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자문위원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은 "마애불상의 이동 방안은 슬링벨트 4개를 활용하는 시나리오4를 기준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변의 충분한 공간 확보와 철골 지그 설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애불상의 최적 관람 위치가 현재보다 높아졌다고 한다면 불상 지반부의 내진설계를 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절충안으로 제시된 와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피력됐다. 이승용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장은 "와불은 입불과 현상유지의 중간점이지만, 두 의견 어느 것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심도 있는 정비 논의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송인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장(서울시립대 건축학부 명예교수)도 "와불에 대한 방안은 오히려 위치와 맥락의 속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입불 방안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입불은 마애불상의 훼손 위험에 대해 대응하고 위치와 맥락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진정성의 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원상을 회복하고 해석과 설명을 통해 마애불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감동을 돕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월 25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보존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마애불 입불 이후 주변 정비 조감도.

1년여 연구용역 결과물 발표
원 위치, 현재 차이없음 추정
본래 자세는 서쪽 방향일 듯

슬링벨트 활용한 이동案 제시
벨트 많을수록 안정성 높지만
현 지반 기중시설 설치 어려워

입불, 유지案 함께 와불도 제시
남산 불교사찰전시관 설립 등
2028년까지 중장기로드맵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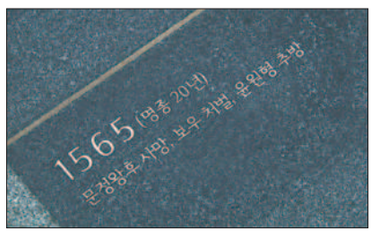
광화문광장 역사물길 연표, 일부 개정된다

간경도감 불경 간행 등…불교 관련 6건 추가

지난해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의 역사물길 연표<사진>석이 불교사를 왜곡하고, 가톨릭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가 최근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개정하기로 한 내용을 공개했다.

종평위에 따르면 개정안에 새롭게 반영될 기록은 △간경도감, 불교 경서 간행 및 언해기관 설립(1461) △원각사(원각사지 십층석탑) 건립(1464) △선교양종 및 승과 개재(1550) △휴정(서산대사), 〈선가귀감〉 편찬(1564) △유정(사명대사)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포로 3000인 귀환 △각황사(조계사) 건립(1910) 등이다. 불서 간행과 한글 보급의 역할을 담당한 간경도감을 비롯해 조계종의 본사가 된 원각사 등 불교를 넘어 역사적으로도 굵직한 사건들이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 1413년 '불교 교단 정비(선종 · 교종 사찰 36개로 통합)'은 '불교, 선종과 교종의 양종으로 통합'으로 변경됐으며, 1473년 불교탄압 일환으로 사족여성의 출가를 금지한 내용을 담아 논란을 불렀던 것은 삭제됐다. 또한 1565년 '문정왕후 사망, 보우 처벌, 윤원형 추방'이라는 다소 이해가 어렵고 해석의 논란이 있었던 문장은 '보우(허응대사) 입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696년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를 축출했다는 문장은 독도를 추가해 의미를 더했다.



종평위원장 도심 스님은 "서울의 대표적 장소인 광화문광장이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하는 장소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연표 오류 수정은 조선시대와 근대 역사의 주요한 기록들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시는 역사물길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사업을 재정비해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태고총림 선암사 신임 주지에 승범 스님

단독후보 출마… 무투표 당선
9월 1일부터 4년 임기 시작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의 제32세 주지에 승범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승범 스님은 7월 26일 순천 선암사 정묵당에서 열린 전산총회에서 선거인단 전체 133명중 97명 참석한 가운데 선암사 주지로 선출됐다. 스님은 9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승범 스님은 선암사 사법 사규상 무투표로 당선돼 이날 당선증을 교부 받았다.

승범 스님은 당선 소감을 통해 "선암사는 제2의 도약의 시대가 됐다. 전체 대중이 혼연일체가 돼 선암사 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시고,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주지가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축사를 통해 "출가도량이면서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 선암사"라며 "열심히 노력해서 종단에 득이 될 수 있는 총무원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범 스님은 1976년 선암사에 지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사미계를 수지, 1991년 태고종 중앙금강계단 덕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태고종 불교전문교육원을 4년간 수학 후 졸업하고 선암사의 교무와 상임포교사, 종회의원, 재무국장, 박물관장, 총무국장 주지 직무대행 등 오랜 기간 선암사의 중요직책을 역임했다.

태고종 정수원 교육원장, 종권수호위원회 위원, 광주전남 종회의원, 광주전남종무원 종회의장, 중앙종회 종회의원, 선암사 비상수호대책위원, 태고종 · 조계종 각 5인 협상위원, 총무원 종책자문위원 등 종단과 지역 교구발전에도 헌신했다.

태고종으로부터 2014년 종사 법계를 품수를 받았으며, 2015년에 종단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경험 전제한 ‘가수계’보다 기존 제도 개선을”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 ‘가수계’ 제도 모색 학술대회

이혼 등 세속생활 정리 않고도
‘승려생활 경험’ 기회 제공 취지
출가자 급감 따른 고민서 비롯

승가질서 훼손 가능하단 우려와
기존제도와의 차별성 의문 제기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 한국불교계가 몇 년 새 이어진 출가자 급감이라는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최근 조계종은 임시수계를 뜻하는 ‘가(假)수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는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가수계 제도의 현대적 복원과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가수계 수용의 모색과 발전 방안(조계종 교육아사리 승범 스님) △율장의 수계법에 근거한 가수계 제도의 적절성 논의(동국대 불교학술원 이자랑) △근현대 대만불교의 출가와 수계(동국대 불교학술원 경완 스님) △조선시대 작법귀감의 수계의식(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 강향숙)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가수계’ 제도는 1981년 단일계단 정비 전인 근대기 한국 사찰에서 임시로 계를 내리던 수계식의 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 조계종이 검토하고 있는 ‘가수계’는 일반인이 승려로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발심해 정식출가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

이자랑 교수는 이를 출가자 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등장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음부터 경험을 전제로 이뤄지는 장기 임시출가는 자칫하면 승가의 질서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험을 중시한다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미 행자 6개월, 사미·사미니 4년이라는 출가 절차가 정립된 상황에서 또 다른 예비승 신분인 ‘가수계’가 이뤄질 경우 애매한 신분으로 인한 승가 화합 저해도 우려했다. ‘가수계’ 출신은 다른 승가구성원에게 별개의 지위로 이해되기 쉽고, 당사자도 스스로를 허드렛일이나 하는 신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계 신분으로 오랜 세월을 보낸 뒤 정식출가를 원할 때 앞서 보낸 시간은 제외한 채 다시 행자-사미·사미니 절차를 밟으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이미 행자 퇴사 비율이 20~5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언급한 이 교수는 “종신출가를 전제로 승가에 발을 들여놓은 자들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일탈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있는 시스템 안에서 출가한 자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논평자로 나선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도 이러한 발제에 상당 부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계종 내에서 시행 중인 출가장려 제도인 △소년출가 △청년출가 △단기출가 △4년 단기 출가 △은퇴출가 △출가학교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가수계 제도는 현행 출가장려 제도들과 중첩되는 면들이 있다”며 “제도별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들 출가제도와 가수계 제도와의 관계성을 고려한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 승범 스님은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게 되고 너무 방임하면 승가의 위상에 문제가 된다”며 “가수계로 문호를 개방해 효과를 얻으려면 적절한 규범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위장출가에 대한 대책 △가수계자에 대한 정확한 명칭 △가수계자에 대한 혜택과 의무 등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를 마련한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누구라도 출가해 수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보고자 한 기획의 시작일 뿐”이라며 “가수계 제도를 통해 출가자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차후 정식 출가자의 길을 선택하는 데 조력해야 한다는 게 오늘 학술대회의 방점”이라고 말했다.

조계종복지재단, 라오스에 ‘희망꽃 피우기’

라오스 아동병원과 MOU 논의
취약가정 환아 지원 사업 확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7월 21일,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3년 동안 진행될 신규 MOU 사업 관련, 주 파트너인 아동병원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사진〉

복지재단은 곧 체결될 신규 MOU사업을 통해 라오스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빈곤가정 난치병 환아들이 지원을 통해 완치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 스님은 “재단은 차기 MOU를 통해 앞으로 3년에 걸쳐 라오스 난치병 환아 지원에 집중하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치료, 회복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 정서 및 학습 지원 등 환아들의 지속 가능한 치료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은호 기자

도선사, 혜성 대종사 원적 5주기 추모 다례

도호 스님 “제자들 정진” 다짐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는 7월 25일 호국참회원에서 진불장 혜성 대종사 열반 5주기 추모다례를 봉행했다.〈사진〉 2018년 원적에 든 혜성 대종사는 생전 청담학원과 혜명복지원을 운영하며 교육과 사회복지 불사에 앞장섰다. 다례에는 청담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생전 혜성 대종사와 인연이 깊었던 사부대중이 참석해 대종사의 유훈을 기렸다.

이날 호국지장사 주지 도호 스님은 상좌를 대표해 “은사스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는데 출가자의 길을 걸은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셨다”며 “60년의 출가생활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상좌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을 재차 당부하셨다”고 인사했다.

스님은 이어 “은사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제자들은 앞으로 더욱 수행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도선사 회주 혜암 동광 대종사는 추모사를 통해 혜성 대종사가 수행자로서 아난존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다. 동광 대종사는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꼭 이 도량에 다시 오셔서 후학과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들려달라”고 혜성 대종사를 추모했다. 윤호섭 기자

불광사, 화합 기원하며 ‘1080일 기도정진’

7월 22일부터 1080일 기도 돌입
“참회·성찰로 불광 되찾겠다”
보광 스님, 동참자들 격려하며
“기도로 무거운 짐 함께 나누자”


불광사는 7월 22일 ‘동명 스님과 함께하는 불광화합을 위한 천팔십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불광에 대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불광사·불광법회를 지키는 것이 곧 한국불교의 미래를 지키는 것임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새기겠습니다. 화합이야말로 그 어떤 훌륭한 덕목보다도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임을 철저하게 깨우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서울 불광사의 화합을 간절히 염원하는 하나된 목소리가 불광사 경내에 울려 퍼졌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내 보광당에서 ‘동명 스님과 함께하는 불광화합을 위한 천팔십일 기도’(이하 1080일 기도) 입재식이 봉행됐다.

1080일 기도에는 ‘참회와 성찰’의 백팔일 참회를 열 번 반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1080일 기도는 지난달 6월 취임한 주지 동명 스님의 고민 끝에 시작됐다. 2018년 6월부터 시작된 내부 분규에서 50여 년 전 광덕 스님이 추구했던 불광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정진뿐임을 알아차렸다. 사찰답고, 스님답고, 불자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었다.

이날 1080일 기도 입재식에는 초청법사로 법석에 오른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이 법문에 앞서 동참자들을 격려했다. 보광 스님은 “기도를 위해 모인 동참자들이야말로 불광법회의 알짜배기”라면서 “주지 동명 스님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 흔들림 없이 기도 정진한다면 1080일 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 1080일 기도를 이끄는 동명 스님의 각오도 새롭다. 입재식에서 동명 스님은 인사말에 앞서 동참자들에게 예를 갖춰 참회의 삼배를 올렸다. 이어 스님은 “‘마하반야바리밀’이라는 화두를 갖고 3년간 정진하겠다”며 1080일 기도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그러면서 “참회와 성찰로 갈등으로 얼룩진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 도심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포교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창건주 광덕 큰스님의 유지를 잇겠다”고 다짐했다.

불광 화합을 기원하는 1080기도는 2026년 7월 4일까지 매일 새벽 5시와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02)413-6060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반야불교문화硏 학술지 ‘프라즈냐’ 창간

불교적 해법 연구·모색
9월 30일까지 원고 모집

전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위기와 전쟁, 계층 갈등, 빈부 격차 등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지가 창간된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학술지 ‘프라즈냐’를 창간하기 위한 원고를 모집한다”고 7월 27일 밝혔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창간하는 학술지 ‘프라즈냐’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기후위기, 전쟁, 질병, 계층 갈등과 기계문명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불교에서 찾아보는 기획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불교사상 전반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는 논문을 발굴하는 것도 학술지의 주요한 기획이다.

오는 10월 창간하는 ‘프라즈냐’의 원고마감은 9월 30일이며 심사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이 지급된다. 투고방법과 논문작성규정은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2011년에 창립된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 사상 연구에 큰 업적을 낸 학자들에게 반야학술상을 시상하고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불교학 진흥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성민 기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잼버리 참가를 위해 한국을 찾은 덴마크 대원들이 서울 화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절하는 법 등 불교 예절을 익혔다.


대원들은 청심 스님의 범종 안내에 귀 기울였다.


대원들은 부처님 생애가 담긴 벽화 앞에서 스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사찰음식을 맛보며 앞으로 접할 'K-푸드'에 기대감을 표했다.

세계 청년들, 템플스테이로 K-불교 매력에 빠지다

잼버리 대원 화계사 템플스테이 현장

7월 25~26일 덴마크 대원 16명 동참
불교예절·절하는법 배우며 연신 미소
"물, 바람, 숲 향기까지 아름다운 곳"
사찰음식 맛보며 'K-푸드' 기대감 up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고요하고 평화로운 사찰 분위기 덕분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휴식이 됐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른 잼버리 대원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요."

전 세계 71개국에서 청소년 4만 3000여 명이 모이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가 8월 1일 개막한 가운데, 덴마크 대원들이 서울 화계사(주지 우봉)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대원들은 "한국불교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들의 '문화 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세계잼버리가 8월 1~1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잼버리에는 14~17세 스카우트 청소년과 지도자 등 4만 3200여 명이 참여한다. 코로나19 이후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만큼 이번 대회는 K-컬처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는 대규모 행사에 불교계도 한국 전통 불교문화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템플스테이가 대표적이다.

7월 25~26일 1박 2일로 진행된 화계사 템플스테이에는 덴마크 대원 16명이 참가했다. 먼저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갈아입은 대원들은 영어로 제작된 안내 영상을 따라 기본적인 불교 예절과 절하는 법을 배웠다.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는 것조차 낯설고 서툰 서로의 모습을 보며 대원들 얼굴에는 연신 미소가 번졌다. 이들은 절을 하느라 흐트러진 서로의 잼버리 항건과 옷을 매만져 주고 모자를 고쳐 씌어 주며 템플스테이 체험에 대한 설렘을 드러냈다.

아직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화계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청심 스님이 맑고 경쾌한 음성으로 도량 안내에 나섰다. 대원들은 덴마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전경에 연신 감탄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전각을 바로 보던 사라 대원(18)은 "태어나 처음 보는 건축양식이 놀랍고 재미있다"면서 "건축물 뿐 아니라 물과 바람, 숲의 향기까지 아름다운 곳"이라고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대원들은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담긴 뒷마당 장독대에서 스님들이 손수 만든 한국 전통 간장과 고추장을 맛보며 처음 느껴보는 맛에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했다. "새끼손가락을 사용해 먹어 보라"는 스님의 안내에 따라 간장과 고추장을 맛본 대원들은 "맵기는 하지만 자연의 맛"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고추장을 맛본 대원들은 "자연의 맛"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한낮 무더위에도 대원들의 호기심은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부처님 생애가 담긴 벽화 앞에서는 진지한 자세로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다. 대웅전 부처님 앞에서는 합장 반배로 예를 갖췄고 낯선 불교 용어는 재차 물으며 확인했다.

니엘 대원(24)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과학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룬 성스러운 공간"이라면서 "스님의 자세한 설명과 안내 덕분에 한국 불교문화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심 스님에게도 이번 안내가 뜻깊기는 마찬가지다. 스님은 "세계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이 한국의 사찰과 그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기쁘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글로벌 시대에 종교의 전통성과 다양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템플스테이의 묘미는 다양한 사찰음식이었다. 1박 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위해 화계사 공양팀이 며칠을 꼬박 준비한 정성 어린 밥상이다. 공양팀은 외국인 손님들의 입맛을 고려해 샐러드와 야채 피자 등 메뉴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그러나 대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대표적 여름철 별미인 오이 미역냉국. 해조류 섭취가 익숙하지 않은 덴마크인들에게 어찌 보면 낯선 음식임에도, 대원들은 호기심 넘치는 잼버리 참가자답게 한입 가득 오이 미역냉국을 들이켰다.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라고 평가한 미켈 대원(18)은 "대회 기간 중 다양한 K-푸드를 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첫날 일정을 108배로 마무리한 대원들은 "도심과 매우 가까움에도 숲과 계곡이 감싸 안은 자연에서 주는 편안함과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면서 "다른 사찰의 템플스테이는 어떤지 이웃 나라 대원들과 빨리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잼버리대회 동안 전국 사찰 곳곳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한국 전통과 불교문화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현재 독일 청소년 2878명을 비롯해 영국, 뉴질랜드, 덴마크 등 8개국에서 3920명이 대회를 전후로 템플스테이를 신청한 상태다.

특히 잼버리대회가 열리는 전북지역의 사찰에서는 다양한 사찰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운사에는 8일 동안 하루 560명씩 총 4480명이, 김제 금산사에는 2560명, 내소사에는 1920명 등 총 8960명이 사전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찰을 찾아 사찰문화해설, 계곡 트레킹, 다도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4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할 역량 있는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2567(2023)년 7월 20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 명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규정)」
제4조 (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 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5.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구비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갖춘 사찰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지정요건) ① 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예산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선정 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23년 9월	2023년 10월	2023년 10월	2023년 11월	2024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지원 없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0일(목) ~ 9월 22일(금)
- 신청자격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소속 사찰
- 신청서류
  1) 2024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자료 포함)
  2)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 신청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1)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2) 파일제출 : jiuk@templestay.com으로 제출
- 접수 및 문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지운규(02-2031-2030)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통지

※신청기한 경과 및 구비서류 누락 시 탈락

천년고찰 숲길서 만나는 '버스킹'

통도사, 매주 일요일 무풍한송로서 공연 제공

팬데믹에 위축된 문화 소통
무료 공연이 활기 불어넣어
아마추어 가수엔 공연 기회
사찰방문객엔 '힐링' 시간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경내 무풍한송로 송수정 앞 무대에서 '통도사와 함께하는 버스킹'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7월 23일 버스킹 무대 현장.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지역민을 위한 버스킹 공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통도사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경내 무풍한송로 송수정 앞 무대에서 '통도사와 함께하는 버스킹'을 개최하고 있다.

7월 23일 열린 버스킹 현장에서는 천상의 소리로 알려진 팬플룻의 연주 소리가 들려왔고, '엘콘도르 파사', '넬라 판타지아' 등 유명한 곡들이 소나무가 우거진 무풍한송로를 채웠다.

오고 가는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가족들과 통도사를 찾은 시민들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은 듯 밝은 미소를 지었다. 시민들은 송수정 카페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불렀고, 박수를 치며 밝은 미소로 공연에 화답했다. 특히 통도사 경내는 장애인을 위한 산책로가 조성돼 사찰을 찾은 장애인 및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무풍한송로 송수정을 찾아 가족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버스킹은 통도사 인근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음악가 모임인 '투 가이즈(Two Guys)'가 담당했다. 통도사에서 진행하는 버스킹 소식을 듣고 공연을 신청한 이들은 공연 직전 인사말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통도사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행복하고 영광"이라고 말했다.

통도사는 지난 6월부터 버스킹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버스킹 공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활기를 되살리고, 지역민과 문화 소통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가수들이 버스킹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무대에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통도사 '송수정(送愁亭)'은 '무풍한송로를 따라 흐르는 청류동 계곡에 근심을 흘려 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직접 지은 이름이다. 송수정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숲속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가수 한영애와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양지밴드 등 유명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송수정은 통도사 산문을 지나 나오는 무풍교를 지점으로 청류교까지 조성되어 있는 솔숲길 무풍한송로 중간에 위치해 있다. 송수정을 찾아 오르는 무풍한송로는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생명상(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통도사는 "송수정 특설무대는 비가 온 뒤에 솔향이 더욱 짙어지고, 흐르는 계곡에는 영축산 맑은 물이 흘러 내려오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세워진 무대"라며 "힐링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음악을 선사해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음악인들에게는 추억을 주고자 준비했다"고 전했다.

'통도사와 함께하는 버스킹'은 지역, 나이 등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통도사 방문 및 메일 주소(plan@tongdos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통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버스킹 참여 희망자는 관객에게 불편감을 주는 행위를 삼가고 특정 종교 및 정당 등을 지지하는 발언은 금지된다. 공연 기간은 7월부터 계속 이어지지만 추운 겨울 날씨 및 우천에는 취소된다.

창원·부산대 불교학생회 성주사 합동 하계수련회

주지 법안 스님 학생들 격려

국립창원대 불교학생회(회장 유주현)와 부산대 불교학생회(김건우)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창원 성주사 일원에서 합동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입재식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을 비롯해 유주현 창원대 불교학생회장, 김건우 부산대 불교학생회장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학생들은 수련회 기간 동안 성주사에서 불교 예절과 황토 숲속걷기 등 힐링의 시간을 체험하고 스님과의 차담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불모산 성주사의 보물 문화재를 알아보며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20대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자신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데 더욱 투자하고 노력하길 바라며 불교학생회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장애인 교육단체에 전한 '연등 공덕'

부산불교연합 1000만원 상당 컴퓨터 · 책상 등 물품 기부
부산연등축제 자비나눔 일환



부산불교연합회가 7월 21일 부산 전포동에 위치한 '장애인 참배움터'에서 '2567부산연등축제 자비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가 7월 21일 부산 전포동에 위치한 '장애인 참배움터'에서 '불기 2567년 부산연등축제 자비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수 스님(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 스님과 연합회 관계자, 이중설 장애인 참배움터 교장, 유재윤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이번 자비나눔을 통해 장애인 참배움터에 직업교육반 수업용 컴퓨터 10대와 검정고시반 및 직업교육반 수업용 책상 20개, 분반 분리용 캐리어 15개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교육 물품을 전달했다. 후원 기금은 올해 부산연등축제 부산연등문화제에서 진행된 시민들의 소원등 달기 체험비 전액과 연합회에서 일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마련됐다.

사무총장 범수 스님은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진행하는 부산연등축제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부산지역의 어려운 단체들을 찾아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시는데 이제야 인연이 되어 미안한 마음이다. 오늘 전달하는 기금은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십시일반 모인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고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중설 교장은 "10년이 넘은 노후화된 컴퓨터와 집기 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이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셔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안히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종교에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2021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지역시장 상인 지원을 위해 59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지역 방역거점 병원인 부산의료원에 1000만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2022년에는 부산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보호 청소년들을 위한 1000만원 상당의 필수 가전제품을 지원해 부처님의 자비사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부산 최초이자 유일한 장애인 교육단체인 '장애인 참배움터'는 1989년 성인장애인 야학으로 개관했다. 현재 50여 명의 학생들이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인문 · 시민참여 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직업능력 교육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 창업과정, 소셜 창업과정 등의 직업능력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관 운영은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과 취약한 시설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 계좌는 농협 121065-51-050098(예금주 장애인참배움터)다. (051)515-0859

이도경 부산지사장

생명 · 자연 살리는 '녹색사찰' 동참

부산 기장 해광사,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협약

부산 기장 해광사(주지 태공)가 7월 24일 경내에서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협약식을 통해 해광사는 환경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녹색사찰로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빈그릇 운동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사찰숲 프로그램 제공 △지역 환경문제에 공동대응 △녹색사찰활동 대외홍보 등을 실천한다.

협약식에는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과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등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현판 전달 및 협약 후 인사말을 통해 환경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은 "안타까운 수해 피해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녹색환경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며 "환경운동은 현대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이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잇는 우리 불제자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녹색사찰로 협약에 동참해주신 해광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신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환경수호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실천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7월 21일 부산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창립17주년 기념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 –장기기증의 필요성 '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했다.

건강암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어르신들 위해 삼계탕 700인분 공양



자비나눔 실천도량인 부산 견강암(주지 향공)이 7월 26일 사상구 모라동 소재 고동바위공원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정(情) 나누기 만발공양'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향공 스님을 비롯해 견강암 소속 봉사단체인 (사)부산정각원 회원 40여 명이 여름철 보양음식인 삼계탕 700인분을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주지 향공 스님은 "그동안 극한호우 피해와 최근의 폭염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더위에 기력이 많이 부족하실 것 같아 이렇게 특별히 삼계탕을 준비하게 됐다"며 "저희들의 정성으로 준비한 공양 맛있게 드시고 올 여름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전수덕 부산정각원 자원봉사자는 "지난해에 견강암과 인연이 되어 스님의 나눔보시 원력에 감동 받아 정각원 회원으로 활동한 지 1년이 지났다. 스님을 비롯해 훌륭한 분들과 봉사를 함께하니 영광"이라며 "사상구민 여러분께서 삼계탕 공양의 좋은 기운을 받아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견강암 나눔봉사는 주지 향공 스님이 30여 년 전 국제시장 난민촌에서 국수만발공양으로 출발했다. 이후 사상구로 도량을 이전 개원 후 17년째 매월 둘째, 넷째 주 국수만발공양을 이어왔다.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인 (사)부산정각원은 2022년 11월 1일 창립 후 꾸준히 회원이 증가해 현재 1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견강암은 무로급식과 함께 장학금 전달, 효잔치, 김장김치, 소외가족 반찬나눔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며 봉사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디지털 사회복지실천 최우수 사례 선정

개금종합복지관, 사회적 고립 예방 활동 평가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한 '2023년 디지털사회복지실천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사진>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며, 현장 우수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열린 공모전이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사례 발표 및 심사를 통해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디지털 사회관계망 형성을 도와주는 '개금안테나APP'를 개발 및 도입했으며 '개금안테나APP'은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업이다. 개금안테나APP는 해마다 증가하는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LTE 패드에 탑재해 시니어 건강신호등 기능을 사용했다. 건강신호등 기능은 어르신들의 몸 상태를 복지관 담당자가 실시간 모니터링하도록 도왔고, 그 결과 고독사 발생이 제로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가정에 전기, 가스, 생활 안전 자가점검을 통한 위험 예방 활동과 복지관 담당자와의 다이렉트 영상통화, SNS(카카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방향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은 "디지털 영역이 넓어지고 있지만 고령자 등 취약계층 노인들은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복지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생명나눔, 창립 17주년 기념 강좌

7월 21일 '장기기증 필요성' 주제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7월 21일 부산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주제로 창립 17주년 기념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생명나눔과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부산시민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활성화 방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강의 후에는 수료증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1부 강의는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을 주제로 박동범 부산 생명나눔 사무국장이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장기기증이 불교핵심 가르침인 동체대비 사상과 맥락을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2부 강의는 '장기 · 인체조직 기증방법' 주제로 복춘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뇌사자 판정 및 기증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 생명나눔 본부장 심산 스님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고 다치셨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 장기기증에 대한 문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현실이란 걸 새삼 느꼈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생명에 대해 그리고 장기기증의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바라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고성 옥천사 가족 캠핑 템플스테이 '인기몰이'

7월 22~23일 개최…15가족, 40여 명 참여

성낙두 경남지사장

여름휴가와 사찰순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가족 템플스테이가 고성 옥천사에서 열렸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는 7월 22~23일 1박 2일동안 가족들과 여름휴가도 즐기고 사찰체험도 할 수 있는 '가족 캠핑 템플스테이' 를 개최했다.

15가족 40명이 참가한 이날 템플스테이에서는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의 지도 아래 △가족들과 손잡고 숲길을 산책하는 걷기명상 △타종 체험 △텃밭에서 수확한 야채로 엄마 아빠와 함께 비빔밥 만들기 △오순도순 둘러앉아 108염주 만들기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삼배 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특히 마가 스님의 어머니 사랑을 담은 영화 '불효자' 시청에 이은 '부모님 발 씻어드리기' 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영화 '불효자' 는 죽음을 앞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전국 유명사찰을 순례하며 못 다한 효도를 다하는 마가 스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템플스테이에서는 8분짜리 버전이 상영됐다.

영화에서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는 마가 스님의 모습을 따라 참가한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부모님들의 발을 닦아드리자 한순간 눈물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서는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태극기 그리기 체험행사' 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마가 스님은 "옥천사는 임진왜란때 왜병에 맞서 싸우던 승병의 본거지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백초월 스님을 비롯해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심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 독립군자금 모금에 앞장섰던 백초월 스님은 만해 한용운과 함께 불교계에서 손꼽히는 애국지사 중 한 분"이라며 "두 차례에 걸친 투옥과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4년 청주교도소에서 순국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송동명 군(대구 성동초등학교 6학년)은 "백초월 스님은 '태극기 시' 를 직접 지을 정도로 태극기사랑이 남달랐던 분이었다고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며 "특히 애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자방루에서 태극기 그리기는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석한 허명욱 씨(회사원)는 "가족사랑에 초점이 맞춰진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사에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에그 깨뜨림 (네 안의 거인을 깨워라)' , '칠월칠석 미혼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와 '불면증 · 다이어트 · 스트레스 · 아토피 · 치유캠프' 등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고성 옥천사 '가족 캠핑 템플스테이' 에 참여한 가족들이 '부모님 발 씻어드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휴가, 사찰순례 동시 체험
태극기 그리기로 애국심 고취
부모님 세족식으로 효심 고양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어린이가 태극기를 그리고 있다.

사부대중, 전북불교 미래를 상상하다

전북불교미래본, 7월 23일
제6차 사부대중 원탁회의의
'내가 그리는 전북불교미래'
주제로 사부대중 50명 논의



전북불교미래본부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내가 그리는 미래 전북불교' 라는 주제로 제6차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사부대중이 모여 전북불교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불교미래본부 사부대중 원탁회의(의장 도법, 금산사 회주)는 '내가 그리는 미래 전북불교' 라는 주제로 제6차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7월 23일 금산사 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과 부주지 원혜 스님,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과 망해사 주지 인담 스님 등 스님들과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장, 유지원 대불련총동문회 전북지부장, 안귀옥 김제불교회관장, 임호연 김제불교회관 사무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일원)와 태공문도회에서 주최하는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망해사 주지 인담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및 동참자의 약속, 석가모니불 정근, 격려의 말씀, 축하의 말씀, 의장스님 말씀에 이어 토론발제 모둠별 주제토론과 결과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발제는 지난 5차 원탁회의에서 발표됐던 이명호 박사(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의 '전북불교 미래예측' 발표영상을 시청한 후 정웅기 전북불교미래본부 연구소장의 요약발표, 이정호 전북불교미래본부 정책위원의 전북생명평화포럼 경과보고, 강만곤 사무국장의 전북불교 미래본부 사업계획 보고, 연등축제 평가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모둠별 주제토론과 토론 결과 발표 및 전체토론이 있었다.

금산사 부주지 원혜 스님(흥복사 주지)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회의는 미래 전북불교에서 주춧돌이 되고 씨앗이 되어 피어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전북불교 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원탁회의에 동참해오지는 못했지만 진행과정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다"며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전북불교 미래에 대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탁회의 의장 도법 스님은 "월주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원탁회의를 처음 제안하고 진행해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면서 "특히 연등축제에서의 성과는 대화와 소통의 결과라는 생각이다. 소신껏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토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웅기 전북불교미래본부 연구소장은 전북불교미래에 대한 영상 요약발표에서 "현대사회가 맞고 있는 기후위기, 인구감소, 노령화는 20년 후에 불교는 소멸에 가까운 군소종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준비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호 미래본부 정책위원은 전북생명평화포럼 경과보고를 통해 사업배경과 취지, 목적, 진행경과 및 향후 과제를 소개하고 불교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만곤 미래본부 사무국장은 전북불교 미래본부 사업계획으로 실천불교, 생활불교, 열린불교라는 범주와 실행영역별 내용, 조직운영의 대강과 연등축제에 대한 평가자료를 통한 변화과 희망의 경험을 보고했다.

이어 모둠토의와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6차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다음 7차 사부대중원탁회의는 12월 16일 '소임자 선출제도' 에 대한 주제로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성당 도견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

해인사, 7월 21일 봉행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한 금성당 도견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해인사는 7월 21일 대적광전에서 '도견 대종사 추모다례재' 를 봉행하고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문도대표 혜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금성당 도견 대종사께서는 평생을 수도와 정진, 그리고 불법을 보호하는 일에 온몸을 헌신해 오신 우리 불교계의 큰 버팀목"이라고 회고하며 "우리 지월문도들은 어른스님의 크신 원력과 가르침에 누가되지 않도록 그 뜻을 조심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일기가 고르지 않은데 참석해주신 대중스님들과 은사스님 다례를 허락해주신 방장스님과 사중 어른스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대종사의 추모다례재를 맞아 대중의 모은 뜻을 섭수해 내세에는 꼭 극락왕생하시고 다시 돌아와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금성당 도견 대종사는 1925년 강화도 화전면에서 태어나 1944년 19세에 오대산 동관암에서 지월 스님(1911~73)을 만나 출가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3년간 교학을 배우고 해인사에서 3년 결사를 시작했지만 6.25 한국전쟁으로 결사를 중단했다. 범어사 3년 결사를 비롯해 선방 시절 해인사에서 당대의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1980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대흥사 조실, 1999년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원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2005년 5월 대종사 법계(法階)를 품수했다. 2013년 해인사 극락전에서 법랍70세 세납 89세로 입적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이 도견 대종사 추모다례재에서 영전에 헌향하고 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세종평진원 MOU

7월 21일 협약식…양 기관 교류 협력 약속

세종신도시 포교를 위해 설립된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지역 교육 진흥을 위해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손잡았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원묵, 이하 체험관)과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남궁영, 이하 평진원)은 7월 21일 기관연계 학당 운영 및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및 현판 수여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험관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체험' , '마음을 그리는 명상' 강좌 등은 평진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강좌 이수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의 명예학위 학점으로 연계된다.

체험관장 원묵 스님은 "세종 시민 교육의 중심이 되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강좌를 개설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에 개설하는 2개 과정 외에도 세종 시민을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남궁 영 평진원 원장은 "세종전통체험문화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여 세종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학습 수요를 만족할 기회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변 연계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 대관에도 적극 체험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쪽방촌 어르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자비신행회 등 여름 물품 전달

무더운 여름 쪽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여름 선물이 전달됐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와 도계스님(소원정사 주지),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회장 김대원)는 7월 24일 광주의 대표적 쪽방촌 지역인 대인동, 계림동 일대 100세대에 '쪽방촌 어르신들의 시원한 생수와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부터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음식 나누기 행사를 1년간 진행했던 도계 스님의 발원으로, 9월까지 10주 동안 생수 500ml 생수 20병과 즉석식품을 지원하고, 영양제(오메가3) 3개월분과 계란 10구 등이 함께 전달됐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는 김대원 신도회장이 선풍기 100대(싯가 600만원)을 더해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전달식에서 도계 스님은 "제가 코로나가 왔을 때 광주 동구 쪽방촌에 계신 130여 분들에게 1년간 공양을 대접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 작은 공간에서 어려운 여름나기를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어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마음으로 전달식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00대의 선풍기를 기증한 김대원 회장도 "평소에 존경하던 도계 스님이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의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선풍기를 준비하게 됐다" 며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양산 미타정사, '자비의 쌀' 2200kg 전달

7월 26일 상하북종합복지관에 매년 1만kg 불우이웃에 전해

양산 미타정사(주지 여해)가 통도사 자비원에서 운영하는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영관)에 자비의 쌀 2200kg을 전달했다.

미타정사 주지 여해 스님은 "이날 전달된 쌀은 미타정사에서 매달 봉행하는 초하루 기도와 방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액 기부된 금액으로 구입한 쌀 1000kg과 백중기도에 영가의 이름으로 공양한 공양미 1000kg,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액 기부된 금액으로 구입한 쌀 2000kg과 불자들이 불전에 공양 올린 공양미 200kg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타정사 여해 스님은 평소 불자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밭과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들을 위한 복밭을 가꾸어 달라고 강조해왔다.

미타정사 회주 도암 스님은 "매년 약 1만kg 정도의 백미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신도들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신도들이 모아주신 정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불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환 신도회장과 최재연 총무는 "큰 금액이 아닌 1만원정도의 보시금으로 청정하게 사용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불자들이 작은 금액을 보시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부담없이 자비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고 말했다. 미타정사는 오는 10월과 11월경에는 태국과 인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의약품과 전동휠체어를 나눔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주지스님은 보디빌더? 日스님의 이색시도

오쿠보 스님, 보디빌더 대회 우승
경내 운동 시설 구축·채식 식단 등
향후 불교와 피트니스 접목 목표
어르신 신도위한 프로그램 계획도

박영빈 객원기자



현역 보디빌더 선수로 활동하는 오쿠보 케이스케 스님. 사진출처=야후 재팬 뉴스

일본 카나가와(神奈川)현에 소재한 사찰의 주지스님이 현역 보디빌더로 화제다. 지난 7월 13일 일본의 '야후 재팬 뉴스' 는 카나가와현 보디빌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오쿠보 케이스케 스님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일본 천태종 소속 오쿠보 케이스케 스님은 7월 1일, 일본 카나가와 현에서 열린 보디빌더 대회에서 신장 169㎝, 체중 80kg으로 출전해 여러 경쟁자들을 제치고 끝내 우승을 거머쥐었다. 스님은 '미스터 카나가와' 라는 타이틀을 받으면서 현 최고의 보디빌더라는 명예를 얻었다. 스님은 "최근 2주간 엄청난 압박으로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그 가운데서도 응원해주는 지인들과 운동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정신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뿐' 이란 말을 스스로에게 하며 준비를 잘 마친 결과 이런 명예를 얻게 됐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장래에 일본 전국 선수권에 출전해 모두에게 인정되는 보디빌더가되는 것이 꿈" 이라고 덧붙였다.

23세의 어린나이에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화제를 끌었지만, 현역의 주지스님이라는 점도 언론에의 주목을 받았다. 스님은 "속가 어머니의 집이 절이었기에, 어렸을 때는 몇 년 동안 외가였던 절에서 살았던 적도 있다"며 불가와의 인연을 전했다. 스님은 "당시 주지였던 외할아버지가 나를 많이 아껴주셨으며, 가족들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고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출가했다"며 출가계기를 전했다.

스님은 신체를 단련하는 것과 스님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며 웃어 보였다. 스님은 "아무래도 몸을 단련하다 보니 도량을 청소하거나 불구나 불단 등을 이동할 때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편하다. 또 아무래도 몸에 중심이 잡혀있다 보니 염불을 하거나 설법을 할 때 발성이 좋다는 점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스님의 향후 목표는 피트니스와 불교를 접목해 포교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스님은 현재 일본불교계에 대해서 "핵가족화의 진행이나 기존 신도의 고령화 등으로 전통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불교와 사찰에서 대중들이 멀어지고 있다. 꽤 젊은 나이에 주지 소임을 맡은 것을 살려 새로운 일을 해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계획 중인 프로그램들은 사찰에서의 요가 교실이나 경내에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체험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스님은 "피트니스에는 식단조절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기존 신도분들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기에 영양균형이 잡힌 식사를 알려주거나, 함께 간단한 운동 등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 신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오쿠보 스님은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 "아무래도 생활체육과 관련된 내용들이기에 단순한 사찰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분들이나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싶다"며 진행방향을 설명했다. 일본에서의 불교문화는 생활에 자연스러운 문화의 하나인 경우가 많기에 "참가자 분들이 '이게 불교행사였어!' 라고 놀라며 알아가길 바란다" 고 전했다.

중국 공안, 티베트 불교 야단법석 중단

참가자들 텐트 철거하고
모래만다라는 물로 파괴



공안이 파괴하기전 거의 완성되었던 칼라차크라 모래만다라. 사진출처=자유 아시아 방송

중국의 칭하이성에서 봉행될 예정이었던 대규모 티베트 불교의 야외법회가 긴급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공안이 강제로 법석을 철거하고 이미 조성된 모래 만다라도 파괴했다고 전했다. 7월 20일 '자유 아시아 방송' 은 중국 공안이 중단시킨 '칼라차크라 법회' 에 대해 보도했다.

현 티베트 자치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옛 티베트의 암도지역이었던 칭하이성에서 봉행될 예정이었던 '칼라차크라 법회' 가 중국 공안에 의해 긴급 중단됐다. 현지 소식통들은 "7월 19일부터 봉행될 예정이었던 법회가 긴급 중단 조치를 받았다. 현재 현지 공안들은 이와 관련된 모든 사진과 온라인 뉴스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사람들은 심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칼라차크라 법회는 티베트 불교권에서 열리는 대규모 관정 법회다. 티베트 불교도들에겐 이 법회에 참석하여 관정을 받은 이들은 다음 생에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성불에 이른다는 속설이 있어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모래만다라를 제작하고 관정을 위한 단을 세우는 등의 준비 작업에 많은 시간과 인원이 동원되기에 극소수의 큰스님들만이 칼라차크라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 티베트 불교권에서도 드물게 봉행되는 법회다.

그러나 법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중국 공안은 법회를 허가할 할 수 없다며 긴급 중단 조치를 내렸다. 공안은 참가자들이 묵는 천막을 허물고, 법회장에서 모래만다라와 법석을 준비하던 스님들을 해산시켰으며, 거의 완성된 모래만다라는 물을 뿌려 파괴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 법회는 암도 지역의 유서 깊은 사찰인 아티사원 주최로, 방장인 따시 갸초 스님이 법주로 봉행될 예정이었다"면서 "현지 주민들은 오랫동안 당국에 따시 갸초 스님이 칼라차크라 법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해왔다" 고 전했다.

자유 아시아 방송 측은 "위성 사진등을 통해 실제 천막과 법회장이 철거됐음이 확인됐다. 암도, 혹은 칭하이성 지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당국은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불교 관련 시설등을 철거하는 등 티베트 불교에 대한 억업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칼라차크라 법회에 앞서 만다라를 조성하는데 며칠씩 걸리기에 이미 많은 신자들이 멀리서 찾아와 법회장으로 준비된 광장주변으로 천막을 치고 법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주최 측도 이들을 위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모두 마련해 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했다.

자유 아시아 방송은 현지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해 "주최 측은 행사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20만 위안(한화 약 3,500만원) 이상을 지불했으며, 참가자들에게 보시할 물품들은 모두 폐기됐다"면서 "현지 티베트인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당국에 그러한 종교집회를 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군부, 대불 조성으로 민심 잡나

거한 대리석 불상 · 공원 조성
"세계 평화 목표" 홍보 눈살

미얀마 군부 정부가 대형불상을 조성, 불교도 국민의 마음잡기에 나섰다.

에이비씨 뉴스는 7월 2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조성되고 있는 거대 대리석 불상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라고 홍보되고 있는 대리석 좌불상은 19m에 달한다. 불상이 안치될 부지는 92000㎡(약 2800평) 상당으로 전각과 각종 탑, 기도처 등이 공원 형식으로 조성된다. 8월 1일 공개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불상 조성은 미얀마 총리인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흘라잉 군 총사령관은 국영 언론을 통해 "미얀마가 상좌부 불교의 중심임을 알리는 동시에 국가 번영을 보여주는 불상"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태다.

에비씨 뉴스는 "흘라잉 군 총사령관은 장기 내전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도 불상 및 부지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국영 언론에서는 불상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리석 불상' 이라고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거대 불상 조성은 군이 민주화를 제압할 때 미얀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국민 90%가 불자인 미얀마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불상 조성과 승가 후원 등을 아끼지 않는다.

2009년 당시 군 통치자인 탄 쉐 장군은 양곤 쉐다곤 탑 옆에 파고다를, 2011년에는 5.37m 상당의 불상을 조성한 바 있다.

임은호 기자



미얀마 네피도에 조성되고 있는 19m에 달하는 대리석 좌불상과 공원. 사진출처=에이비씨뉴스

1000년 인도 불교유적지, 관광지 급부상

트리푸라 주 정부 유적지 '필락'
사리탑 등 다수…부지 개발 박차



불교 고고학 유적지 필락의 모습. 사진출처=트리푸라 투어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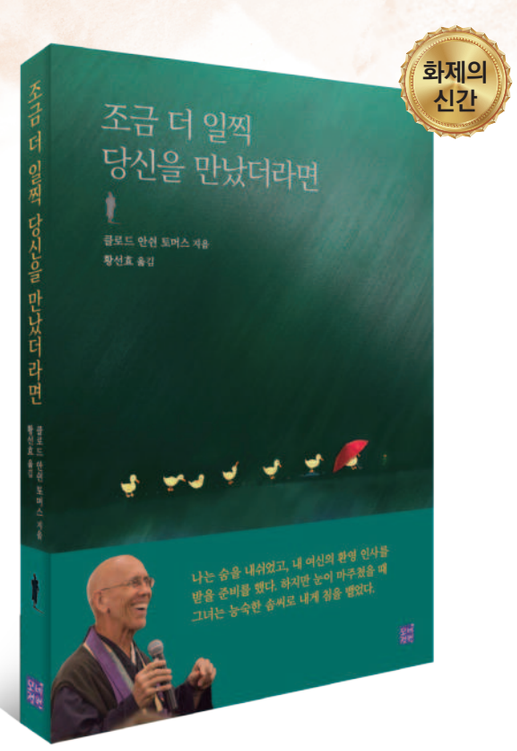
인도 북동부 트리푸라 주 정부가 1000년 된 불교 유적지 필락(pilak)을 고고학 여행 패키지로 구성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해당 지역은 9세기 제작된 관세음보살상을 포함한 다양한 고대 불교 조각품이 발굴된 곳이다.

현재 필락에서는 테라코타와 돌로 만든 사찰 명판, 조각품. 사리탑 등 고대 불교 문화재가 끈임없이 발굴되고 있다. 인도 고고학 조사(ASI)는 1990년부터 필락 유적지를 관리해 왔으며 벽돌 사리탑과 불상, 대승불교 조각품 등에서 나타난 양식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이 힌두교가 퍼지기 전 원래 불교 왕국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우탐 팔 주 관광부 수석 엔지니어는 "필락이 고고 유적지로 지정돼 150m 이내에는 영구적인 구조물을 지을 수 없지만, 제한 구역 밖으로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방문객들도 원활히 유적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시아 국가 불교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부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만해대상 평화대상에 '세이브 우크라이나'

동국대,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실천대상엔 더프라미스, 곽병은 천양희 시인 · 김동호, 문예대상
8월 12일 만해축전에서 시상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7회 만해대상 평화대상에 우크라이나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선정됐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공영대 · 동국대 교무부총장)는 '제27회 만해대상'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올해 평화대상은 우크라이나의 NGO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수상하며 불교계 국제구호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와 곽병은 의료복지협동조합 밝음의원 원장이 실천대상을 받는다. 문예대상은 천양희 시인과 김동호 前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평화대상 수상자인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로 납치된 어린이-청소년을 구출하는 단체다.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해에 미콜라 쿠벨라에 의해 창립됐다. 창립 이후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9만 명의 난민들에게 장단기 쉼터를 제공하고 직업 교육과 트라우마 치료 등의 활동을 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납치 어린이 구출에 뛰어들었다.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9일 31명의 어린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23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와 러시아 점령지에서 구출해 집으로 귀환시켰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더프라미스'는 국내외 지진, 태풍, 전쟁 등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불교계 대표적 국제구호협력기구다. 2008년 법등 스님이 이사장을 맡아 창립한 '더프라미스'는 재난 긴급 구호 단체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긴급구호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네팔 대지진, 2021년 미얀마 쿠데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현장에 직접 구호팀을 파견해 이재민 구호활동을 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 지진을 비롯해 2020년 여름 수해 현장, 2023년 강릉 산불에 이르기까지 구호팀이 직접 달려갔다.

함께 실천대상을 수상한 곽병은 원장은 30여 년 전부터 사재를 털어 강원도 원주에서 장애인과 홀몸노인들을 돌보는 봉사를 묵묵히 해오며 '원주의 슈바이처'로 불려왔다.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경기도 안양 성나자로마을에서 한센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했다. 사회복지시설 갈거리사랑촌, 무료급식소인 십시일반, 노숙인센터를 설립 및 운영했고 현재 갈거리협동조합을 통해 노숙인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일도 시작했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천양희 시인은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소월문학상, 박두진문학상 등 여러 문학상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 여성 시인이다. 가식 없이 수수하고 진솔한 언어로 독자들의 마음을 감싸 안으며, 젊은 날의 상처를 진솔하면서도 서정적인 언어로 바꿔내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잠언시집 〈그리움은 돌아갈 자리가 없다(1998)〉 〈너무 많은 입(2005)〉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2011)〉 〈새벽에 생각하다(2017)〉 〈지독히 다행한(2021)〉 등의 시집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예대상 수상자인 김동호 위원장은 '한국영화의 외교관', '부산국제영화제의 아버지'로 불리며 세계 주요 영화제를 석권하고 있는 'K-무비'의 개척자이다. 김 위원장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1988년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하며 영화와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영화불모지였던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가 개최되는 도시로 끌어올렸다.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집행위원장으로서 2010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도 영화계를 위해 다양한 활동 중이다.

2023년 만해축전의 백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거행된다. 만해축전은 동국대와 강원도, 인제군, 조선일보, (재)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유심작품상 시상식을 비롯해 학술행사, 문화예술 행사 및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 라마,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함세웅 신부, 마리안느 스퇴거 전 소록도 간호사, 조정래 소설가, 모옌 노벨문학상 수상자, 산학인 엄홍길 등이 있다.

평화대상 수상자



세이브 우크라이나

실천대상 수상자



더프라미스 (이사장 묘장스님)



곽병은 원장

문예대상 수상자



천양희 시인



김동호 위원장

남해 용문사 단청들을 만나다

용문사, 8월 9~15일 경인미술관서 특별전

'보물' 대웅전 단청들 첫 공개
이수예 교수 등 佛母들 전시도
전통–현대 불교미술 흐름 확인

임진왜란 승군들의 호국도량이었던 남해 용문사의 고색창연한 단청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광복절을 앞두고 열린다.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는 오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1, 2층에서 '수국사찰 남해 용문사 특별전'을 개최한다. 개막식은 8월 10일 오후 1시.

이번 전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동국대 불교미술전공이 진행한 남해 용문사 대웅전 단청기록화 사업을 통해 재현된 작품들을 일반에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현대 불화계에서 손꼽히는 동국대 출신 중견 작가인 이상배(전 한국불교미술협회장), 박진명(영산문화재연구소 대표), 김석곤(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 이수예(동국대학교 불교미술전공 교수), 김정현(한국전통문화교육원 단청심화 객원교수), 심근호(동국대학교 강사), 황대곤(동국대학교 강사), 이정영(동국대학교 강사) 등이 창작불화 작품 40여 점과 용문사 전통 단청 재현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불교미술을 아우르는 전시 콘셉트를 확인할 수 있다.

전시회는 중견 작가들의 창작경인미술관 제1전시장 1층은 현재 불교미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동문 작가들의 작품을 위주로 배치하고, 2층은 남해 용문사 대웅전 단청 가운데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엄 문양들을 엄선했다.

남해 용문사는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의 말사로, 신라 문무왕 3년(663) 원효 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이 절의 승려들이 승병으로 참여해 왜군과 싸웠는데, 이 때 절이 화재로 소실됐다. 이후 1661년(현종 2년) 학진(學進)이 인근 보광사(普光寺) 건물을 옮겨와 중창했고, 용연(龍淵) 위쪽에 터를 잡았다고 해서 용문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임란 이후 호국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숙종 때는 나라를 지키는 절이라며 수국사(守國寺)로 지정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과 천왕각, 명부전, 봉서루, 칠성각, 산신각, 요사 등이 있으며 사내 암자로는 1751년(영조27)에 세운 백련암과 염불암이 남아있다. 특히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18세기 이후 서남해안 지역 불전 건축 경향과 수려한 장엄 기법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보물로 지정됐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전체적으로 금단청이 화려하게 시문돼 있으며, 주간포마다 용머리와 봉황이, 살미에는 장식성이 강한 연꽃, 연봉이 초각돼 있다. 대웅전 내부 단청의 가장 큰 특징은 천장부에 양각으로 곳곳에 새겨진 어문, 용문, 모란문 등의 동식물 장식인데 이는 바닷가 건축물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에 용문사는 2018~19년까지 동국대학교 불교미술전공(책임연구원 이수예 교수)에 의뢰해 대웅전 내외에 장식된 단청을 전통재료와 기법, 첨단 보존과학 방식으로 기록하고 DB작업을 완료했다.

주지 승원 스님은 "용문사는 호국사찰로 숙종임금의 각별한 관심으로 절의 재건에 국가적 지원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며 "이번 전시가 조선 후기 불교건축의 아름다움과 수준 높은 전통 단청의 장엄미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을 주관했던 이수예 동국대 교수도 "국가에 소속된 당대 최고 장인들을 모셔 수준 높은 목조건물을 조성하고 최고수준의 장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조선의 불모(佛母)들이 자신이 가진 최고의 신앙심과 기술을 온전히 담아 이뤄낸 이상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02)462-9994

신성민 기자



기록화된 남해 용문사 대웅전 단청.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6~8/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보리도차제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뺀첸라마 롭상예쎄	운주사	6	부처님의 생애 (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2	법륜 스님의 행복	법륜	나무의마음	7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사유수
3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8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4	불교개설 (조계종 신도교재)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9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자랑, 이필원	민족사
5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정운	민족사	10	붓다 연대기:완전한 분 붓다의 위대한 삶과 가르침	이학종	불광출판사

책세상

팔순 노학자가 회고한 삶·학문 여정



말로 말을 버린다

이민용 지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기획

모시는 사람들 펴냄

2만원



在美학자 원로 이민용 선생
에세이, 기고 등 모아 펴내
이민자-거리감 조화시키며
한국, 불교, 종교 깊게 사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재미(在美) 불교학자인 이민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사진>은 팔순을 넘겨서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자이면서 독실한 신심을 가진 불자다. 그의 삶과 학문의 여정, 그리고 불교·종교론을 담아낸 〈말로 말을 버린다〉가 발간됐다.

저자는 "내 인생을 〈금강경(金剛經)〉을 천착하는 것으로 보내려 했으나 결국 금강석을 다루는 일로 끝마치게 됐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이는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강단에도 섰지만, 홀연히 미국으로 건너가 학문과 담을 쌓고 지내며 생업(보석상)에 전념하다 다시 학문과 직업을 병행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친구들에게 농담 삼아 하던 말이다.

이민용 이사장은 한창 학문적 성숙을 향해 가는 36세의 나이에 홀연 학문 현장을 떠나,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된다.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 삶의 유일한 목표였던 학문의 길을 벗어버리는 과정은 만남도 고(苦), 헤어짐도 고(苦)의 연속이었다.

이후 그는 우연·필연적인 기회에 하버드 대학의 동양학 강의를 청강하면서, 다시금 학문의 길로 회귀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동양학 내용에 한국의 불교나 유학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것이 그의 의욕을 자극했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 전통과 일본 불교 특징 사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회귀한 학문 여정의 최정점, 바로 앞에서 그는 전회(轉回)를 선택한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학문과 수양을 겸전하는 삶의 자세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이후 저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찾아 헤매는 자"로서 초빙교수, 방문교수로 강의하거나, 한국불교연구원, 종교문화연구소의 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소임'을 수행해 왔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학자의 책상 위에 책갈피에 존재하고, 박물관에 전시된 박제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불교학을 벗어나, 기존의 틀을 깨고 껍질을 벗겨 내온 과정이었다.

책은 "재수하는 학문과 삶"이라고 스스로 명명한, 자신의 학문 여정을 회고한 1부에 이어 2부 불교 리뷰, 3부 이민자의 눈으로 본 세상, 4부 단상은 한국과 미주에서 신문, 뉴스레터 등에 기고한 단편들이 수록됐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살아왔던 저자는 기독교 신앙이 생활양식이 된 미주 한인 사회에서 '섬'처럼 떠 있는 불교를 신행하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였다. 어느 곳에서도 주변인으로 머물렀던 그이기에 그가 전하는 미국 내의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고찰들은 귀 기울일만 하다.

저자는 단편적인 글들을 통해서, 미주 한인 사회에 불교가 이식되고 정착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린다. '내부를 간직한 외부자'로서 저자는 미국에서, 불교의 진면목을 더 넓게, 더 멀리, 더 깊게 천착해 나간다.

이 책의 또 하나의 축은 그가 평생 불교학의 언저리를 떠돌며 만났던 적지 않은 수의 불교학, 종교학의 선배, 동학, 후배들의 면모를 알려준다는 점이다. 36세에 학문의 길을 접으며 그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부조리한 학교 사회의 관행보다도, 그동안 만났던 뛰어난 스승, 동학(同學)들과 이별하는 일이었다. 그들로부터 받은 영감과 그들의 혜지(慧智)들은, 저자의 단편적인 회고 속에서도 생생하다. 이기영, 서경수, 박성배, 안병무(기독교), 일타스님 등의 불교학 석학과 그리고 스승 이기영을 통해 접한 장 필리오자, 포르 드미에빌, 주세페 투치, 라모트, 외젠 뷔르누프 등 서구의 불교학자에 이르기까지 짧은 글 속에서도 그들의 학문적 업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학문 여정에 대한 에세이들을 통해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여러 가지 행태와 과제 상황을 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종교인가, 종교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의 빛을 얼핏얼핏 엿볼 수 있게 된다.

책 제목인 '말로 말을 버린다(因言遣言)'는 〈대승기신론〉의 경구는 그가 미주 한인사회, 그중에서 불교계에 대하여 말의 위험성, 말로 인해 오해되고 빚어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무릅쓰고 자기주장을 펼쳐 나갈 때, 스스로를 경계 시키는 말이다. 그러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소통단절'을 겪고 있는 현대인에게 돌려주는 경구이기도 하다.

▲저자 **이민용 이사장**은

1941년 서울 출생.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공부했으며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국대, 가톨릭대, 서강대 등에서 강의했다. 동국대 역경위원,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국제참여불교연대 실행위원, 영남대 국제교류원 교수, 동국대 객원교수, 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2018년부터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불교학 연구의 문화배경에 대한 성찰', '미국 속의 불교와 불교의 미국화', '서구불교학의 창안과 오리엔탈리즘' 등의 글이 있다.

토닥토닥, 쓰담쓰담 마음 보듬는 글들



고요한 소리

연암 스님 지음

도서출판 도반 펴냄

1만5000원



연암 스님이 대중에 보내는
'고요한 소리' 메시지 묶어

그물에 걸려듭니다.
자기를 고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의 말을 들어만 주더라도 마음의 세계는 넓어집니다.

-본문 중에서

불교 공부는 본래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와 닿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불교의 콘텐츠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최대한 쉽게 만들려는 노력을 수없이 해왔다. 그러한 노력에 스님들의 온갖 정성과 창의성들이 녹아 있다.

현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여서 온갖 정성을 드린 새롭고 창의적인 불교의 콘텐츠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많은 불자들의 공부를 위해서 방편으로 쓰이고 있다.

용인 행복선원 주지 연암 스님<사진>은 매일 아침 '고요한 소리' 메시지를 보내며 하루를 시작한다. 스님의 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불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도 많고, 또 해야 할 것도 많아서 아차 잊기 쉽고 소홀하기 쉬운 것이 마음공부이다. 그런 불자들에게 매일 아침 도착하는 스님의 글은 마치 마음을 깨우는 죽비와도 같다.

연암 스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지도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글도 그렇다.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쉽고, 짧고, 직접적이고, 간단한 글이다.

그렇지만 수행자의 글답게 그 속에는 깊은 마음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쉽지만 쉽지 않은 역설이 있는 것이다.

나에게 닥친 일들은 내가 불러들인 것이기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나는 못해! 하기 싫어!'

스스로 문을 닫으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결국 나를 가두게 되어 스스로 쳐 놓은

불교의 마음공부는 본래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단지 오랜 세월 동안 묵은 고정관념과 습관이 깨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의 차이인 것이다.

책 중간중간 삽입된 사진들은 연암 스님이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들이다. 이는 책의 내용과 더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책을 보고 연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보고 싶다면, 행복선원 유튜브 채널을 접속하길. 그리고 스님의 글은 행복선원 밴드에서도 만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저자 **연암 스님**은

지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 봉녕사 강원을 졸업했다. 동학사에서 자비명상과 위빠사나를, 붓다스쿨에서 위빠사나를 지도했다. 현재 행복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출가, 입산, 부처의 삶을 가다

신록같은
비구니 스님들의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동학사 일초 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의 편지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원 동학사!
동학사 화엄학림장 일초 스님과
학인들의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마음은 초록색 힐링!

일초 지음 | 292쪽 | 14,500원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일상생활상

KBS 2TV 다큐 3일의 신선한 감동!
비구니 강원 청암사의 365일!

청암사 승가대학 편집실 | 360쪽 | 15,000원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수녀에서 비구니스님으로

독특한 이력의 일아 스님,
고등학교 교사에서 종교인으로!
태국, 미얀마, 미국에서 보낸 종교인의 삶!
체험으로 빚은 수행철학, 깨달음의 책

일아 지음 | 356쪽 | 12,000원



마음 거울
그림자와 떠나는 치유 여행

마음수련 프로그램 동사섭의 개척자이자
영성 교육의 대 마스터, 상담가들의 스승인
대화 스님의 상담 사례집!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의 행복을 선사하는 책

대화 지음 | 328쪽 | 15,800원



종이 칼
법념 스님의 산문집

팔순을 바라보는 노비구니스님이
컴퓨터 자판을 친다. 불현듯 연말이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진다.

법념 지음 | 252쪽 | 13,800원



살다보면 살아진다
대중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잘 견디고 있다고 응원하는 정운 스님
일상 생활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책

정운 지음 | 252쪽 | 13,800원

오늘도 행복한 '랜선 사찰여행' 만나보실래요

무여 스님의 '좌충우돌 유튜버 성장기'



무여 스님은 수행자이자 유튜버이다. '무여 스님 TV'를 통해 사찰 여행 콘텐츠로 대중과 소통하는 스님은 최근 〈우리 함께 떠나요〉를 출간했다. 저서에 모두 담아내지 못했던 내용들을 출판사 '담앤북스'를 통해 본지에 전해왔다. 〈편집자 주〉

이제는 다가가는 불교로

불교가 너무 좋아 열아홉 살의 나이에 출가했다.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사찰에서 소임을 맡아 생활하다 불교를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동국대에 편입해 석·박사 과정까지 밟게 됐다. 그러다 문득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다. 예전에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맡아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하게 됐다.

그러다 떠올린 것이 유튜브였다. '1인 방송'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찍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다. 몇몇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단 무엇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지 고민했다.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행과 촬영이었다. 곧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사찰에는 많은 문화재와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려운 교리 대신 사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불교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당장 유튜브에 올려진 사찰 관련 영상을 찾아봤다. 당시에는 사찰 전각이나 풍광을 쭉 훑어보는 영상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런 설명이 없거나, 설명이 있어도 재미가 없고 지루했다.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사찰 여행 영상을 만들고 싶었다. 우선 콘텐츠 이름을 '무여 스님과 함께 하는 사찰여행'으로 짓고 사찰의 유래와 역사, 이야기, 전각, 문화재를 소개하는 영상을 기획했다. 대중과 사찰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채널명은 사찰 여행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무여 스님 TV'라고 지었다.

일주일에 한 편, 총 108개의 사찰을 소개하겠다는 원(願)을 세우고 지역별로 가볼 만한 사찰을 선정했다. 다음으로 사전 조사를 하고 대본을 준비했다. 대본에는 사찰의 유래와 역사, 전각별 차이점과 불상과 탑의 내력 등 반드시 전달해야 할 정보를 꼼꼼히 담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상에 은근히 녹아들도록 경전이나 조사 어록에서 찾은 경구도 적어뒀다.

오프닝 영상은 항상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여행.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다음 사찰과 어울리는 좋은 경구와 평소 가슴에 와닿았던 부처님 말씀을 소개하고 본격적인 사찰 소개를 이어간다. 클로징 영상에서는 사찰에서 느낀 점을 간략히 이야기한 후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로 끝인사를 했다. 대본은 가능한 다 외우려 노력했다.

콘텐츠 기획을 끝내고 촬영 장비를 마련했다. 비싸고 좋은 장비보다 사용하기 편하고 가벼운 것으로 골랐다. 작은 캠코더와 삼각대, 액션캠, 녹음기 등 필수 장비만 먼저 구입했다. 액션캠은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서 초반 영상은 거의 액션캠 하나로 촬영했다.

편집 기술도 배워야 했다. 여러 편집 프로그램 중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기로 하고 책과 영상을 통해 사용법을 익혔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색했지만 영상을 잘라 연결하고 배경음악을 넣는 법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108사찰여행의 첫발을 내딛어 보자!

첫 촬영의 아찔한 기억

첫 촬영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강화 전등사로 정했다. 액션캠 하나 들고 씩씩하게 찾은 전등사에서 추운 날씨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촬영했다. 하지만 막연한 자신감과 달리 혼자 대본 외우랴, 촬영하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래도 계획했던 영상은 모두 찍었다는 생각에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런데 맙소사!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영상뿐이다. 대체 무엇을 찍은 것인지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전부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시작도 제대로 안 하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마음을 가다듬고 두 번째 촬영에 나섰다. 그런데



해인사 법기암에서 유튜브 촬영 중인 무여 스님.

일주일에 한 편, 108사찰 소개 목표
강화 전등사 시작으로 콘텐츠 업로드
나쁜 시선, 악플 등 감당해야 하지만
뉴미디어서 佛法 전하는 데 큰 의의
유튜브, 더 넓은 포교의 장 활용되길

걸으면서 말을 하려니 숨이 차고, 누군가 쳐다보기라도 하면 너무 부끄러워 숨고 싶어진다. 결국 두 번째 영상도 실패다.

고민만 하다 며칠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마침 인연 있던 보살님의 도움을 받아 촬영을 시작했다. 그렇게 세 번의 도전 끝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봐줄 만한 영상을 담을 수 있었다. 바로 편집해서 첫 영상으로 올렸다. 이것이 바로 2019년 3월 3일 업로드 된 '무여 스님과 함께 하는 사찰 여행-전등사 편'이다.

사실 첫 영상을 올리는 날 무척 떨렸다. 온 세상에 나의 영상을 내보인다는 생각에 설레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다. 아무도 안 보진 않을까, 나쁜 댓글이 달리지는 않을까? 다행히 주변 지인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며 응원해 준 덕분에 곧바로 300명의 구독자가 생겼다.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이다.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하나 모두 확인하고 답했다. 힘들게 촬영한 영상인 만큼 보람도 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로 다음 촬영 준비가 시작됐다. 일주일에 한 번, 총 108개의 사찰 여행 영상을 올리겠다고 계획했기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다음 촬영할 사찰에 관해 조사하고 대본을 작성했다. 촬영 장비를 챙기고 편집 노하우도 정리해뒀다.

촬영 현장에서 웃지 못할 사건도 많았다. 양구에 있는 군법당에서 스님 인터뷰를 진행하고 돌아와 영상을 확인하는데, 놀라 기절할 뻔했다. 촬영 중 액션캠이 움직이는 바람에 스님이 아닌 천장만 찍은 것이다. 그 먼 곳까지 가서 몇 시간이나 진행한 인터뷰인데. 참으로 안타까웠다.

봉화 청량사에서의 촬영도 기억에 남는다. 새벽 일찍 출발해 힘들게 촬영을 마친 후,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무심결에 벗어든 채 산길을 내려왔다. 주차장 가까이 와서야 두루마기에 끼워뒀던 녹음기가 생각났다. 아뿔싸. 아무리 찾아봐도 녹음기가 없다. 설상가상 길을 잘못 들어서 미끄러운 산길에 넘어지기도 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야말로 힘든 여정이었다.

그럼에도 2년간 매주 사찰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건 구독자들의 따뜻한 응원과 반갑게 맞아주신 스님들 덕분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유튜버를 꿈꾸는 스님들께

'부캐(부캐릭터)' 전성시대다. 본인의 진짜 역할과 모습이 있고 그와 다른 부가적인 캐릭터가 존재한다. 진짜 자신의 모습보다 '부캐'가 더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분들도 많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내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승려, 수행자다. 그리고 5년 차 유튜버이기도 하다. 승려로서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내 모습을 영상을 통해 세상에 공개하기까지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1인 방송 시대,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다.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도 영상을 만들어 전 세계에 내보일 수 있다. 특히 내 마음대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해 업로드 할 수 있다는데 큰 매력을 느꼈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까짓것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다.

유튜브를 하며 가장 속상했던 것은 몇몇 분들의 부정적인 시선이었다. 스님이 왜 방송을 하느냐, 돈벌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사실 촬영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댓글도 마찬가지다. 영상에 달린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답글을 달아주고 있는데, 나쁜 말들을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밖엔 없다.

촬영할 때의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사찰에서 촬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너무 부담스러워 어디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면 유튜브를 할 수가 없다.

'무여 스님 TV'를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 처음과 달리 지금은 유튜버 스님들도 많아졌다. 불교가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거나 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텐츠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스님이라면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공유한다면 사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는 스님이라면 수행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즉 위의(威儀)와 여법함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영상 속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승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적으로 스피치 교육을 받는 것도 권한다. 나 역시 아나운서에게 개인 강습을 받고 조계종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과 BTN 설법학교 수업도 들었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풍부한 불교 지식과 상식도 필수다. 경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하고, 뉴스를 통해 시사 상식과 교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쉽고 재미있게 불교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다.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매체이기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 번 업로드된 영상은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 제작 과정에서 여러 번 확인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나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유튜브를 통해 스스로의 수행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회적 이슈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 유튜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 산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스님들이 유튜브를 포교와 전법의 장으로 활용하게 되길 바란다.



무여 스님은 1999년 출가해 운문승가대학과 삼선불학승가대학원,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잠실 불광사에서 어린이 청소년 법회 지도법사로 활동하다 문화를 통한 전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9년 3월 유튜브 채널 '무여 스님 TV'를 개설했다.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무여 스님과 함께 하는 사찰 여행' 영상이 인기를 끌었다. 올해 5월까지 120여 곳이 넘는 사찰을 소개하며 구독자 5만 명 돌파, 누적 조회 수 41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 화계사·성남 봉국사 불교대학 강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경기도 고양시 보리선원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산골 노승의 푸른 목소리

산골 노승 향봉 스님의 아주 오래된 질문,
늘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게 하는 죽비소리!

60여 만 부가 팔려나간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후
올해 봄,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내며
40여 년 만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다시 돌아온
향봉 스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님의 아주 오래된 질문인 행복과 자유,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을 엮어가는 지혜와 깨우침의 죽비소리가 절절하다.
게다가 수행자들에게 던지는 애정 어린 쓴소리까지
한 줄 한 줄 가슴에 새기며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어떤 설법보다 강렬하게 가슴에 와닿는
스님의 푸른 목소리가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산골 노승의 푸른 목소리
자유롭고 당당하게 오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
향봉 지음
248쪽
값 17,000원



젊은 날의 어느 날,
세차게 내리는 장맛비를
실오라기 한 올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맞으며
엉엉 소리내며
흐느낀 추억이 있다.
무엇으로도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젊음이
승복 안에 갇혀
답답하고 가련하여
울었던 것 같다.
이제는 머리 허연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
봉지커피를 마시면서도
곱게 자란 행복으로
고마워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향봉 스님
익산 미륵산 사자암 주지. 상좌도 공양주도 없이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한다. 어린 시절에 백양사로 출가했고, 해인사 선방을 거쳐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지냈다. 1973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으로서, 수필집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6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늦은 나이에 철이 들어,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으로 15년의 치열한 구도행을 떠났다. 이후 돌아와 20년째 사자암에 머무르며, 머리와 수염이 허연 미륵산의 한가로운 노승으로서 할 일 없이 평화와 자유 누리며 살고 있다. 2023년 봄,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펴내며 40여 년 만에 다시 베스트셀러 작가로 돌아왔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8 스리나가르여, 스리나가르여 2

▶한줄 요약
이 기자 일행은 예언자의 무덤이라는 라우자 발(Rauza bal), 일명 라자발에 도착해 현장을 직접 볼 수 있게 됐지만 예수의 지팡이와 모든 전설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劍이 예수의 지팡이로 둔갑?

그렇게 말하고 오오스마 기자가 관리인을 향해 다가갔다.

그들은 잠시 무슨 말인가를 나누었는데 고개를 끄덕이던 관리인이 앞장서서 어디인가로 갔다. 그들이 모퉁이로 사라지고 한 십여 분 되었을까. 키가 작고 몸집이 뚱뚱한 사내와 함께 오오스마 기자가 나타났다. 키가 작은 사내는 이제 오십이나 되었을까? 오오스마 기자의 신문사 편집장 형이 분명해 보였다. 그가 허리춤에 찬 열쇠로 문을 땄다. 푸른색의 나무문이었는데 자파티처럼 넓적한 쇠 장식 열쇠였다.

문이 열리자 오오스마 기자가 우리를 불렀다. 한걸음에 다가갔는데 키가 작은 사내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우리들의 인사를 받았다. 국장의 형님이 맞았고 이곳의 관리 소장이라고 했다.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핸드폰도 안 됩니다. 핸드폰을 끄세요.

그의 말대로 핸드폰을 꺼내 끄고서야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쾌쾌한 냄새가 콧속으로 달려들었다. 실내는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는데 바닥은 검붉은 빛이 돌았다. 마치 붉은 양탄자를 깔아 놓은 것 같았다. 그렇다고 양탄자는 아니었다. 통로 위의 문틀들이 푸른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졌고 문은 분홍색이었다. 무슬림 양식이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지하실인 것 같았다. 문 앞에 푸른색의 철창이 처져 있는 것이 보였다. 소장이 철창이 쳐진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문 앞에 글이 붙어 있었다. 유즈 아사프, 즉 예수가 수 세기 전에 카슈미르 골짜기에 들어왔으며 그는 진리를 찾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는 글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개의 묘실이 나왔다. 소장이 안쪽 묘실을 가리켰다. 먼저 두 개의 긴 돌이 보였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한 돌이었다. 그것들은 나무 울타리로 잡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위를 형식적으로 천을 덮어 놓은 것 같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가요?

내가 허망한 어조로 물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직사각형의 공간이었다. 입구에 작은 묘돌이 보였고 그 안쪽에 길고 큰 묘돌이 보였다.

-안쪽 큰 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묘석입니다. 이쪽의(입구 쪽) 작은 묘석은 이슬람의 성인 시에르 나시드 우드딘의 묘석입니다. 그는 15세기 여기에 묻혔지요.

-그럼 저 돌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 있는가요?

내가 물었다.

소장이 고개를 내저었다.

-그럴 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실제 석관은 밑에 있습니다, 그 석관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위에 목관을 두었지요. 목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물이 들어 있습니다. 저 묘석은 단순한 덮개입니다.

-볼 수 없나요?

알렉스가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더 내려가야 볼 수 있는데 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볼 수 없나요?

-그것은 이 주위에 있습니다. 바로 저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새겨져 있습니다.

넷의 시선이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다. 돌바닥이었고 돌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특이했다.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조작된 느낌의 것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생긴 흉터 자국이 선명했다.

-신통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그대로 여기 찍혀 있다니.

알렉스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소리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닥돌 위에 섰다고? 하마터면 나는 알렉스의 얼굴을 쳐다볼 뻔했다. 분명히 그의 발자국은 후세인이 정으로 쪼은 것이었다.

나는 발자국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지팡이 자국이나 그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마지막으로 소장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생전에 들고 다니셨다는 지팡이의 흔적과 행방의 기록이 있다던데요?

소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여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무쿠암에 있다는 지팡이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 지팡이에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머물다 일생을 마친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지품이 모두 여기에 있었는데 왜 그 지팡이만 무쿠암에 묻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왈리의 선조에게 전해졌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 말이에요. 이미 세상에 드러났으니까요.

-드러나요?

-그것이 무쿠암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의 지팡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저도 분명히 보았으니까요.

-보았다고요?

어떻게 생겼더냐고 물으려다가 그렇게 내가 물었다.

-네. 전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쿠암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럴까요? 어떤 작가가 인도에서의 예수인가 뭔가를 쓰면서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는데 글쎄요? 그 성물에 접근하다가 죽어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이상하고….

-그러고 보니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 지팡이를 보았다는데 어떻게 생겼던가요?

내가 꿀꺽 침을 소리 나게 삼키고 소장에게 물었다.

-그저 평범한 나무 막대기였어요. 꼭 창처럼 생겼더군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예수의 지팡이가 있었다. 어떤 작가가 예수의 일생을 더듬다가 예수의 무덤이 있다는 곳에서 가까운 무쿠암에 묻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는 예수를 신앙하는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이미 그 전에 아디카야의 검이 묻혔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아디카야가 지팡이로 대체 되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일단은 마음이 놓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해서 기대했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

밖으로 나와 소장과 헤어지고 나서야 알렉스의 눈치를 보며 오오스마 기자가 한마디 했다.

-그러게요.

-예전에 여기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땐 국장님도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러나 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기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동안 라자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예수의 부활? 그들의 성경에 그 대답을 분명하게 하고 있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요. '예수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도 이런 구절이 보인다고 해요 '로마 형리들이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 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때 이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건 모를 일이지요. 이런 기록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발이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정상적인 십자가형은 이삼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탈진 상태로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형리들은 그것을 예수의 죽음으로 보았고 미리 준비된 동굴 형태의 무덤에 안치시켰을지도 모르지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이 무덤은 아리마태아 요셉의 개인 소유'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라고 하더군요.

-빌라도?

-예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총독 빌라도 말입니다. 그는 그때 이미 예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형은 개인 소유지에서 몇몇 사람들만 모인 가운데 치러졌으며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앞뒤가 맞아요. 이로써 유대교 파의 질시와 저주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시에 유대인의 메시아(Messiah)로서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구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후, 가사 상태에 있었다?

듣고 있다가 내가 물었다.

-완전히 죽었다면 정말 예수의 부활이 있었을까요?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 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다 보면 살아나는 경우가.

-그 후 예수는 그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몇 년 살다가, 성모 마리아, 동생 토마 등을 데리고 이곳으로 왔다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가 38세 되던 해 이곳에서 사망했고 그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카슈미르 지역의 경계에 있다고 하더군요. 마리(Mari)라는 마을인데 마이 마리다 아스탄(Mai Mari da Asthan)이라고 불린다고 하더군요.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휴식처라는 뜻이랍니다.

-그럼 예수는 줄곧 라자발에서 살았나요?

내가 물었다.

-115세에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라자발에 묻혔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긴 한데 근데 그거 역시 어디까지나 추론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쿠암에 묻힌 것이 예수의 지팡이일 수 있다?

-그런 기록도 없지만, 소장님 말은 왜 예수의 지팡이가 그곳에 묻혔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115세까지 살았다? 그럼 행동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순간도 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겠지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곁에 두었어야 했을 겁니다. 앉아 있어도 지팡이를 짚어야 했을 테니까요. 우리 할아버지도 105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지팡이를 놓지 못하셨어요. 지팡이는 할아버지의 상징이었지요. 어디 갔다 돌아오면 언제나 지팡이가 문 곁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가 죽은 후에 왈리라는 성인이 지팡이를 훔쳐내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도 늙었기에 예수가 죽자 그 지팡이를 짚고 무쿠암으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의 지팡이를? 다시 부활하시면 어쩌라고? 그래서 더욱 예수 곁에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군요. 예수가 이적을 많이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 지팡이가 마술 지팡이도 아니고 보면.

-지팡이만 무쿠암에 모실 이유가 없다는 소장님의 추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쿠암에 든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정설대로 아디카야 검이 맞는다면 후대의 이슬람교도들이 예수의 지팡이로 둔갑을 시킨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돌에다 예수의 발자국을 정으로 찍어 만들 듯이 말입니다. 더욱이나 발자국 옆에 있다는 지팡이의 기록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렇군요! 〈계속〉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⑮ 본래 부처라는데 왜 화두가 필요한가?



▶한줄 요약
일체 망상을 하나의 화두로 비우고 그 화두마저 타파하면 부처의 지혜를 단박에 완성할 수 있다.

화두, 망상 타파하는 밝은 지혜



고양 흥국사 선명상 템플스테이에서 화두 명상하는 고양시청 직원들.

참선 명상은 고달픈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준다. 참선 명상에는 그런 치유의 힘이 있다. 이것은 오직 체험해야만 알 수 있다. 세계적인 명상붐으로 다양한 명상법 중에 가장 빠르고 깊은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화두 참선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참선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관련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는 조계종 스님들을 중심으로 화두 참선법을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가 법사나 일부 스님들이 화두 없이 참선을 말하는 것이다.

같은 불교와 참선을 말하면서도 어떤 분은 화두 참선이 가장 빠른 깨달음의 길이라 강조하고, 또 어떤 분은 화두 참선도 필요 없는 참선을 말할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선(禪)에서는 어째서 본래 부처라 하는가?

선종의 종전(宗典)인 〈육조단경〉에서 혜능대사는 이렇게 말한다.

"선지식아! 보리반야의 지혜는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육조 혜능대사는 우리에게 부처의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는데, 단지 미혹하여 깨닫지 못한다고 말한다. 부처님도 일체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였듯이 선종에서도 우리에게 부처의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다고 한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부처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성당을 다녀도 본래 부처인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나오지 않는가? 어째서 본래 부처가 교회와 성당에 나가서 하나님, 절대 신을 찾고 믿음을 구하는가?

우리가 본래 부처인줄 모르고 중생이라 착각에 빠져 분별망상 속에 살기 때문이다. '나' 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 는 착각에 빠져 삶과 죽음의 분별 망념을 일으키고 살아간다. 분별망상이 오락가락하니 본래 마음의 지혜가 가로막혀 나지 못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밝은 해가 먹구름에 가로막히면 빛이 나오지 못하다가 걷히면 저절로 드러나는 이치와 같다.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본래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 망상을 일으키니 본래 마음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부처이니 깨달음도 수행도 필요 없는가?

불자들 중에 참선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본래 부처인데 왜 수행이 필요하느냐?' 이다. 실제 동아시아 선종의 한 문파인 일본 조동종(曹洞宗) 선사들은 우리가 본래 부처이니 1분 앉으면 1분 부처, 5분 앉으면 5분 부처가 된다고 가르친다. 그냥 묵묵히 앉아서 자기 마음에 번뇌망상만 비우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부처가 된다하니 대중의 호응이 좋다. 지금도 일본불교계에는 선종 문파 중 간화선맥의 임제종 보다 조동종 선풍이 더 강하다고 한다. 그만큼 일본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본래 부처이니 깨달음도 수행도 필요 없이 그냥 쉬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견해는 우리나라에서 참선을 말하는 분들에게도 보인다. 유튜브를 보면 참선 수행자라면서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의 법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선의 대중화라는 면에서 이런 활동은 찬사 받을 일이다. 그 어렵다는 참선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하고 발심의 인연을 짓게 하니 좋은 일이다.

본래 부처이나 분별망상이 완전히 없어야 부처다

그러나, 본래 부처이니 깨달음도, 수행도 할 것이 없다는 견해는 부처님이 무아(無我)를 말씀하셨으니 윤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말과 같이 혼돈을 가중시키는 말이다. 과연 본래부처이니 수행도 깨달음도 필요 없는 것일까?

본래 부처이니 깨달음도 필요 없다는 말이 불교의 정견(正見)이 되려면, 우리가 본래 부처이니 초조 불안하고 화내고 욕망대로 도둑질하고 살상을 범해도 그대로 부처라는 말이 된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 '여래출현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치고 보니 일체 중생이 여래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분별망상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혼잣말로 하신 말이라고 경전에는 기록되어 전한다. 이로 보아 부처님도 깨치기 전에는 스스로 중생이란 분별망상에 가로막혀서 자기 안에 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다가 깨치고 보니 본래 지혜와 덕이 갖춰져 있더라 하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와 같은 지혜와 능력이 갖춰져 있지만, 분별망상에 가로막혀 그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에 일체 분별 망상 없애고
본래 지혜 밝히는 참선법 화두

내 안에 일체 번뇌 망상 비우고
부처로 돌아가는 명료한 수행법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망상을 완전히 없애는 깨달음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 '팔만대장경'은 모두 번뇌망상을 비우고 깨치라고 하신 말씀이다.

선종의 육조 혜능대사도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 부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본래 스스로 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깨치지 못하고 있다고 혜능대사는 이렇게 말한다.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성품을 보라. 깨달음을 만나면 지혜를 이루리라."

우리에게 반야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지만 분별심에 가려져 알지 못하니 바른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 마음을 깨달아 지혜를 밝히라는 말씀이다.

부처님과 혜능대사의 법문과 같이 우리가 본래 부처라 할지라도 스스로 중생이라 착각에 빠져 분별망상에 가로막혀 자기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생사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려면 내 안의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우는 수행과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수행 정진을 통하여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우면 깨달아 내 안의 지혜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성철스님이 재가 불자로 처음 화두 참선을 시작한 지리산 대원사 탑전.

화두란 나쁜 지식과 망상을 꺾는 무기

화두 참선을 한다고 하면 가끔 이런 말을 접한다. '본래 부처인데 왜 그 어려운 화두 참선을 합니까? 그냥 여여하게 본래 부처로 살아요.'

화두 참선 없이 깨달음도 없이 본래 부처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하루 한 끼라도 먹어야 산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나 '내가 있다' '내가 중생' 이라는 착각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한다. 본래 부처이니 중생심 그대로 부처다, 지혜다 아무리 주장한들 생사 윤회의 괴로움을 피할 길이 없다.

생사의 분별심, 중생이라는 착각 망상을 완전히 깨어나야 부처라는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 생사의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우려면 비울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분별망상을 없애는데 화두는 특별한 효능이 있다. 간화선을 창안한 대혜 선사는 '무(無)' 자 화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 한 글자는 허다한 나쁜 지식과 생각을 꺾는 무기입니다."

화두는 우리 마음에서 일체의 분별 망상을 없애고 바로 본래 지혜를 밝히는 탁월한 참선법이다. 우리가 이대로 본래 부처이나 자기 안에 번뇌의 불을 완전히 꺼야 부처다. 아무리 본래 부처라 하더라도 자기 안에 중생이라는 착각 속에서 나와 너, 선과 악, 옳고 그름 등 분별 망상이 그대로 있다면 부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화두는 내 안에 허다한 나쁜 지식과 망상을 꺾는 가장 빛나는 지혜다. 화두는 내 안에 일체의 번뇌 망상을 비우고 본래 부처의 지혜를 밝히는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다. 화두는 중생이란 착각에서 깨어나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가장 간단명료한 수행법이다.

일체 망상을 하나의 화두로 비우고 그 화두마저 타파하면 부처의 지혜를 단박에 완성하기 때문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법주 대륜 스님의
'불교 전통제례의식 교본' 출시

49재 및 천도재 의식 교육자료



고객상담실 010-9049-0016 교재문의 010-6488-3761

한국불교전통범패 학인모집

위 본 종단 종무원에서는 강주 민지효 스님을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법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종무원장님으로부터 수료증(이수증)을 수여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인에게는 혹익범패단에 입단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개 강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 법당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47 청하빌딩 4층
■ 접수처 : 부산 종무원 (051-5580-5077)
■ 강 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내 용

1. 조석예불 : 아침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등
2. 사시예불 : 거불성, 독경, 동음 등
3.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게, 도량게 등
4. 천도의식, 수륙제, 점안의식, 화청, 공덕게
5. 천수바라, 사다라리바라, 요잡, 관욕바라
6. 도량게, 다게(나비춤), 법고춤

태고종 부산종무원 원장 마나

국가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세계유네스코 등재)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⑮ 합천 해인사 업경대와 업칭대

▶ 한줄 요약
생전에 지은 죄를 낱낱이 비추이는 명부의 거울 시설을 '업경대(業鏡臺)'라 부른다. '업칭대(業秤臺)'는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 시설이다. 업경대와 업칭대는 저승 명부에 있는 '거울과 저울'이다.



업을 비추고, 업의 무게를 재다

업경대는 거울, 업칭대는 저울

중생은 무명의 무지로부터 온갖 갈애를 일으킨다.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고 쌓는다. 업은 범어로 '카르마(Karma)'라고 하고, 한자로는 '갈마(羯磨)'라 한다. 행하다, 짓는다는 뜻이다. 몸과 입,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업의 종자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업의 종자는 성장하고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한 과보가 뒤따른다. 선한 행은 선업으로, 악한 행은 악업으로 작동하여 업의 차별에 따라 지옥, 인간, 천(天) 등의 삼계육도를 윤회한다. 불교의 업에는 자신이 짓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업자득, 혹은 윤회라는 엄정한 인과율의 원리가 내재해 있다.

이승은 지금 여기 삶의 수레바퀴이고, 저승은 저 너머 삶의 수레바퀴다. 저 너머 미지의 세계를 '명부(冥府)'라 부른다. 명부의 '명(冥)'은 '어둠'을 의미한다. 때론 아득한 어둠의 세계라는 의미로 '유명(幽冥)'이라 부르기도 한다. 망각의 강 '레테의 강'을 건너면 명부의 세계다. 명부에는 지옥세계를 관장하는 열 분의 대왕이 있다. 그 열 분이 명부전이나 지장전에 봉안한 시왕(十王)이다. 명부에 들면 거울과 저울 앞에 선다. 생전에 지은 죄를 낱낱이 비추이는 명부의 거울 시설을 '업경대(業鏡臺)'라 부른다. '업칭대(業秤臺)'는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 시설이다. 칭(秤)은 '저울'의 의미다. 업경대는 죄업을 비추는 거울, 업칭대는 죄업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다. 업경대와 업칭대는 저승 명부에 있는 '거울과 저울'이다. 두 지물은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 등의 명부신앙 소의경전을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본다. 〈예수시왕생칠경〉에 그 대목이 나온다. "다섯 번째 칠일에는 염라대왕 앞에 선다. 머리카락을 잡혀 머리 들어 업경을 보게 된다. 비로소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분명히 안다(第五七日過閻羅王…策髮仰頭看業鏡 始知先世事分明)." 스스로 지은 업을 낱낱이 보게 되고, 엄정히 측정한 죄업의 무게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됨을 일깨우고 있다. 업경대와 업칭대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증거하는 시각적 조형물에 다름없다.

유일한 실물, 해인사 업경대

업경대와 업칭대는 명부전의 시왕도 불화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다. 열 분의 시왕 세계를 그린 시왕도 중에서 제5 염라대왕도와 제9 도시대왕도에 실감나게 표현돼 있다. 통상 업경대는 제5 염라대왕도에, 업칭대는 제9 도시대왕도에서 볼 수 있다. 구미 수다사 명부전의 경우처럼 제1 진광대왕도에 업칭대를 그려두는 특별한 사례도 있다. 업경대는 실물로 60여 점 현존한다. 그에 비해 현존하는 업칭대는 극히 드물다. 해인사와 고운사에 각 한 점씩, 두 점이 전한다. 그마저 고운사 업칭대는 명부전의 동자가 손에 든 간단한 저울 형식이다. 고유한 업칭대는 해인사 성보박물관에 전시 중인 업칭대가 유일하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해인사 성보박물관에는 목조 업경대와 업칭대가 동시에 진열돼 있다. 두 실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유일한 경우다. 현재 업경대와 업칭대는 '합천 해인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로 묶어 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명부전의 온전한 모습을 구현한 총 33구 목조각의 구성으로 평가한 것이다. 해인사 시왕상 일괄은 1673년 조각승 자수(自修)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업경대와 업칭대가 그 때에 제작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해인사 업경대와 업칭대는 두 성보유물의 실물 유일성,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의 온전한 집합 속에 조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시왕상 일괄에 업경대와 업칭대가 포함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 해인사 업경대의 크기는 높이 100.4cm, 길이 66cm이고, 업칭대의 크기는 높이 159cm, 길이 81.4cm이다.

업경대의 전형은 삼단 형식이다. 받침대, 간주목, 화염문 속의 거울 등의 삼단 구성으로 조형이 비교적 간단하고 장식도 단순하다. 기단 형식이나 거울 장식 등에서 저마다 개성을 가진다. 시왕도의 제5 염라대왕도 속의 업경대와 실물 목조각 업경대를 두루 살펴보면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자좌 받침의 업경대: 전등사, 불갑사, 동화사, 청곡사, 해인사 등 목조 업경대에서 두루 나타나는 보편 양식이다. 거울 둘레는 붉은 화염문으로 장식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밀양 표충사 명부전의 업경대에선 연화좌 위의 두 황룡과 청룡이 받침대와 간주목(竿柱木) 역할을 하는 독특한 구성으로 제작했다. △둘째, 단순한 2단 기단에 간주목을 세운 업경대: 시왕도 불화에서 보편적으로 묘사하는 형식이다. 기림사, 옥천사, 청곡사, 수다사, 산청 대원사 시왕도 등에서 두루 볼 수 있다. 특히 수다사 시왕도 속의 업경대에는 선악 그대로를 비춰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선악소현업경대(善惡昭現業鏡臺)'라는 방제를 적어 눈길을 끈다. 실물로는 김천 직지사 대웅전 불단 위에 안치한 업경대가 대표적이다. △셋째, 수미산이나 연화좌 형식의 받침에 광배를 갖춘 업경대: 직지사, 월정사, 고운사, 예천 용문사 등의 업경대. △넷째, 타원형 틀에 직사각형 거울을 끼운 업경대: 19세기말~20세기에 조성한 근현대 서울·경기지역 시왕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업경대 형식이다.

업경대, 지은 업 비추는 거울
업칭대, 업의 무게 재는 저울
현존하는 업경대 실물 60여 점
해인사엔 업경대, 업칭대 실물



좌로부터 해인사 성보박물관의 업경대와 업칭대, 고운사 동자가 쥔 업칭대.



수다사 명부전 시왕도의 제5염라대왕도 업경대와 제1진광대왕도 업칭대 부분.



왼쪽부터 동화사 업경대, 표충사 명부전 업경대, 고운사 불영패, 직지사 대웅전 명경대.

명경대, 관상 통한 청정수행 법구

업경대를 두루 살펴볼 때 시왕도 속의 업경대와 실물 목조각의 업경대는 사뭇 다른 경향을 띤다. 시왕도 속의 업경대는 2단의 기단 위에 세로로 긴 수미좌 형식의 간주목 연화좌를 올리고 둥근 거울을 결합한 형태가 보편적 전형으로 나타난다. 목조 업경대와는 달리 시왕도 속에선 대부분 거울 둘레에 화염문을 장식하지 않는 경향을 가진다. 또한 업경대의 거울 표면엔 빠짐없이 소를 도살하는 장면을 그려둔다. 그에 비해 실물로 전해지는 목조 업경대는 장식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대체로 거울 둘레에 빠짐없이 화염문을 장식하고, 받침대 조형에서도 사자, 용, 용머리 가진 거북, 수미산 형상 등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특히 위에서 소개한 셋째 형식의 목조 업경대는 특별히 눈길을 끈다.

업경대는 표충사 명부전, 남양주 흥국사 시왕전에서의 배치처럼 통상 명부전의 불전 장엄물로 간주한다. 그런데 몇몇 업경대의 경우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부산 범어사 대웅전,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에서처럼 법당장엄 목조각 형식으로 중심 불전에 배치하기도 한다. 왜 명부전이 아닌 법당에 업경대가 있을까? 이들은 업경대 조형이 죄업을 비추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제작하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앞서 세 번째 형태로 분류한 용문사, 고운사, 월정사, 직지사 등 일련의 업경은 청정한 마음, 혹은 불성을 비추이는 거울로 제작한 또 다른 형식으로 이해된다. 이들 업경대는 통상의 업경대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수미산, 혹은 연화좌 받침 위에 거울을 올리고 거울 둘레에는 불상의 거신형 광배를 장식하는 파격을 보인다. 표충사, 고운사 업경대 등의 바닥면 명문에서는 '명경대(明鏡臺)', 혹은 '불영패(佛影牌)'라 명명하고,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 〈준제정업〉의 '불모준제상' 도판 그림 속 업경대에는 '경단(鏡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명경'과 '불영', '준제보살'은 공통적인 의미로 상통한다. 그것은 '청정(淸淨)'이다. '준제'도 청정을 뜻하는 범어의 한자음이다. 청정심과 밝은 마음(明心)이 모든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다. 청정심을 닦아야 거울에 부처님이 비추인다. 명경대는 업경대와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지만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 명경대는 관상을 통한 수행 법구로 봐야 한다. 진언과 결합한 밀교적 성격이 강하다. 부처님이 나투시는 명경이므로 거울에 광배를 장엄하는 것은 당연하다. 업경대를 대웅전 같은 중심 불전에 봉안해 둔 이유이기도 하다.

업칭대의 눈금은 법의 엄정한 잣대

국내 유일의 업칭대인 해인사 업칭대는 청색 사자가 등에 지고 있는 형태다. 사자 등에 연잎을 말안장처럼 얹고, 그 위에 저울의 무게중심을 지탱하는 수직축을 세웠다. 수직축은 홍살문의 창살처럼 생겼다. 수직축 상단에 막대 추 저울 모양으로 수평 막대를 끼워 넣었다. 수평 막대 양 끝엔 원래 저울추와 무게를 잴 개체를 얹는 청동접시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접시 매단 끈과 수평막대만 남아 있다. 업칭대 고유의 형상은 여러 시왕도의 제9 도시대왕도에 잘 묘사돼 있다. 앞서 밝혔듯이 수다사 시왕도에선 특이하게도 제1 진광대왕도에 업칭대를 그려뒀다. 업칭대 상단의 붉은 방제란에 '권평두칭(權平斗秤)'을 새겼다. 엄정하게 재는 저울이라는 의미다. 수평 저울막대엔 눈금이 선명하다. 기림사나 옥천사, 서울 흥천사, 온양 민속박물관 등의 시왕도 속 업칭대에도 막대눈금이 선명하다. 선연한 눈금은 법의 엄격한 잣대를 의미한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물리적 질량 측정의 엄격함과 신중함을 대변한다. 시왕도 속 업의 무게를 재는 장면에는 대개 4~5명의 구성원이 등장한다. 판관 2~3명, 보조동자 2명 등이다. 옥천사 시왕도 속 업칭도에선 긴장감마저 흐른다. 3명의 판관이 살피는 눈길과 손길이 예리하다. 업과 운명을 심판하는 엄정성이 불화 내면에 미묘하게 흐른다.

해인사 업경대와 업칭대 조형의 본질은 권선징악의 일깨움에 있다. 업경대와 업칭대 조형은 과거 일곱 부처님께서 한 결 같이 가르치신 '칠불통계(七佛通戒)'를 환기시켜 준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의 가르침이다. 어떤 악도 행하지 마라. 두루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법의 눈금은 만고에 흔들림이 없다. 〈사진작가〉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불교인문학살롱 ⑮ 경허 스님의 무애행



▶**임길순 작가**는 충북 제천 출생. 1998년 〈책과인생〉 등단. 〈한국산문〉 편집부장, 한국문인협회 성동지부장 역임. 제8회 풀꽃문학상 · 제15회 한국산문문학상 · 제14회 서울시문학상 수상.

경허 스님 무애행, '대자비심'의 발로

요즘 생활에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으시고 두루 평안하시온지요. 삼가 그리워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저는 예전 같이 지내고 있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집의 동생 혼사의 연길(혼사 날짜)을 드리오니, 신랑의 옷 치수를 적어 주시길 삼가 바랍니다. 예를 갖추지 못하고 줄이니 헤아려 주십시오. 혼사 택일은 29일입니다. 사문 경허 재배.

伏維際玆靜履起居 候萬裕伏溯 區區無任之至記下故依, 昔將餘何足煩 舍帝家親事 涓吉仰呈 衣製錄視, 伏望耳 不備伏惟 念九日 沙門 鏡虛 再拜(경허연구소 홍현지 박사 제공)

경허(鏡虛, 本名 宋東郁, 1849~1912) 스님이 녹두장군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창혁에게 보낸 서찰이다. 스님의 부친 송두옥은 전북 완주군 봉상면 구미리에, 전창혁은 완주군 우동면 구암리에서 가까이 살아 친분이 있었다. 경허 스님은 여동생의 혼인을 위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혼주가 됐다. 여동생과 전봉준의 혼사를 앞두고 스님은 신랑 아버지에게 신랑의 옷 치수를 묻고 택일을 알리는 편지였다.

마이산 금당사에도 경허와 전봉준의 흔적이 있다. 일제 강점기 금당사 주지 김대완 스님은 유림과 의기투합하여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였다. 김대완 스님과 경허 스님은 잘 아는 사이였다. 전봉준과 처남 매제 사이가 된 경허는 동학운동을 준비하는 전봉준에게 자연스레 용기를 주었다. 동학군의 첫 기병 장소를 알려준 이도 경허였다는 내용이 그가 보낸 편지에 남아 있다.

경허 스님의 여동생인 전봉준의 부인은 27세에 둘째 아이를 낳고 얼마 후 별세했다. 갓난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씨 성을 가진 여인이 아이들을 돌보다가 자연스레 전봉준의 아내가 되었다. 이 씨 부인과도 두 아들을 두었다.

전봉준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한양으로 압송되자 역적의 집안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여동생의 딸 전옥련을 금산사에 숨겼다. 그것도 불안하여 친분이 깊은 진안 금당사 주지 김대완 스님에게 당부했다. 전옥련은 스님의 보살핌으로 성을 김 씨로 바꾸고 8년간 금당사에서 숨어지내다가 옆 동네의 남자와 혼인을 한다. 이때 스님은 전옥련을 보기 위해 금당사를 찾았는데 금당사 고금당 나옹굴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 몇 편 전한다. 그중 하나가 '화엄해중(華嚴海中)'이다. 시에서 지인은 경허 자신이라고 한다.

"장차 지인을 숨기기 위해(將爲至人隱)청산은 깊고도 깊었는데(靑山深復深)/복사꽃 도리어 아무일 없이(桃杏還無事)/옛 부처 붉은 마음 토해 내더라(吐紅古佛心)"

전봉준은 1895년(고종 32년) 3월 29일 지금의 종각역 부근에서 처형당했다. 그날은 150여 동안 금지되었던 승려의 도성 출입을 허용하는 입성해금(入城解禁)된 날이기도 했다. 역적에게 누구라도 도움을 주었다가는 삼대가 멸할 지경이니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었다. 전봉준의 처형당한 육신을 수습한 이는 경허 스님이었다.

일본 일련종(日蓮宗)은 종교침략의 한 방법으로 도성 출입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를 감파(勘破)한 경허 스님은 "나에게 서원(誓願)이 있으니 발이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다"라며 조선의 스님들을 경책(警責)했다. 스님은 이것을 끝으로 승복을 조계사에 벗어 놓고 삼수갑산으로 떠나 은둔했다. 만약 그가 숨지 않고 혹시라도 전봉준과 처남, 매제 사이라는 게 알려진다면 인연이 닿았던 이들이 당했을 고초는 어떠하였겠는가.

지방 권력자들의 수탈은 백성들에게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사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양반들은 사찰 소유의 토지를 빼앗을 목적으로 백지 편지를 봉안해서 주지에게 보낸 후에 스님을 고문하여 백지가 차용증이라는 억지 자백을 받아냈다. 그래서 사찰의 주지들은 수탈자에게 백지 편지를 받으면 그날로 야반도주를 하기도 했다. 어지러운 나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은 승과 속이 따로 없었다. 전봉준과 손병희가 연합하여 우금치 전투를 벌일 때 십만여 명이 넘는 민중들이 결집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아우성이었다.

매제 전봉준 시신 수습한 경허 스님
일제가 승려 도성 출입 허하자 분노
"경성 땅 밟지 않겠다"며 삼수갑산行
大覺 후 아이에게 막대 주며 "때려라"
민초 아픔 대신한 고통의 역설 아닐까

나라 밖 정치는 외세의 야욕과 개항의 요구가 거셌던 격변의 시대였다. 이러한 외세를 읽지 못하고 조선의 왕은 동학농민 운동을 저지하려 외세를 끌어들였다. 결국 외세들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일전쟁(1894~1895), 러일전쟁(1904~1905)을 통해 조선 백성들의 땅에서 패권 싸움을 벌이게 된다. 울분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전봉준과 백성이었다.

나라가 난세인데 그가 민중을 돌보지 않고 기행으로 일관했다고 여겼다. 이번에 경허 스님의 걸림이 없는 무애행(無碍行)의 궁금증이 실타래처럼 풀렸다. 동학사에서 대강백이라 명성이 자자했던 경허가 청계산 청계사에 머무는 스승 계허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천안쯤에서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 몸을 의지했던 처마에서 전염병으로 마을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자신에게 분노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화두를 참구(參究)했다.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있던 경허 스님이었다. 이때 시중을 들던 동은 행자는 마을에 사는 이 진사의 아들이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로 몰락한 양반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와 있었다. 이 진사도 그런 몰락한 양반의 집안이었다. 아들에게 유가의 학문보다 불문에 들여 행자 수업을 시켰다. 어린 행자의 눈에 경허는 움직이지 않는 바위와 같았다.

하루는 동학사 스님들이 탁발하러 가게 되었다. 이 진사의 아들 동은도 대중스님들과 마을로 가게 돼 그리운 아버지의 집에 들렀다. 함께 탁발하던 학명 스님과 이 진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저녁 한때를 보내던 중이었다. 이 진사가 중노릇 잘못하면 죽어서 소가 된다는 말에 학명 스님은 어찌하면 소가 되지 않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죽어서 소가 되어도 고삐 뚫을 구멍이 없는 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 뜻을 알 수 없었던 학명은 경허 스님을 모시는 천진한 행자 동은에게 고삐 뚫을 구멍이 없는 소의 뜻을 경허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동은이 경허에게 소가 되어도 고삐 뚫을 구멍이 없다는 소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허 스님은 활연대오(豁然大悟), 물아(物我)가 공(空)한 도리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육신을 초탈하여 어떠한 일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를 깨달았다. 경허 스님은 이 순간을 오도송으로 읊었다.

홀연히 사람에게서 고삐 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忽聞人語無鼻孔)/ 문득 깨닫고 보니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내 집이로구나(頓覺三千是我家)/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六月鷰巖山下路)/ 들 사람 일이 없어 태평가를 부르네(野人無事太平歌)

이렇게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 된 경허 스님이 한번은 자신을 지게 작대기로 아프게 때리면 엿을 사주겠다면서 아이들에게 작대기를 줬다. 개구쟁이들은 의아스럽긴 했지만, 엿을 사 준다는 말에 스님을 작대기로 마구 때렸다. 경허는 그때마다 맞지 않았다고 외쳤다. 경허의 가슴에 무어그리 커다란 설움이 있어서 사정없는 작대기의 타작도 아프지 않았던 것일까. 매를 맞은 것은 누구였을까. 이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인 된 스님의 청정한 진아(眞我)가 아니라 무상한 몸뚱일 뿐이라는 가아(假我)의 선언이 아니었을까. 스님의 외침은 백성들은 저리 아픈데 그 아픔을 대신한 고통의 역설이 아니었을지.

오늘은 내가 많이 아프다. 경허 스님의 무애행을 제대로 감파(勘破)하지 못한 내가 울고 싶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인데 그가 깨달은 선지식이 무슨 소용 있었을까. 백성이 어린아이처럼 길가에 버려진다면 경허 스님과 전봉준이 바라던 '태평가'는 허망한 그림자일 뿐일 것이다. 깨달음이란 것도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백성을 잃었고 그의 매제인 전봉준을 잃었다. 그러한 이별의 고통을 그렇게라도 달래려 아이들에게 작대기를 쥐여준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경허의 무애행은 대자비심이었다.

나라가 수탈자로 변한 관리들로 멍들어 갈 때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기행을 한 그가 품은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경허 스님은 스러져가는 20세기 간화선의 선풍(禪風)을 다시 일으켰다. 경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제자 중에 삼월이라 일컫는 수월, 혜월, 만공(월면)은 삼수갑산으로 떠난 스승을 그리워했다. 수월은 갑산군 도하리에서 박난주로 살며 훈장 노릇을 하던 경허를 찾았다. 문밖에서 애타게 불렀지만, 스승은 만나주지 않았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운 방법으로 짚신 몇 켤레를 정성껏 삼아 댓돌 위에 올리고 돌아섰다.

수월은 스승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에서 머물다가 스승의 열반을 만공에게 알린다. 그리고 경허 스님이 무애행을 한 것처럼 백두산 기슭 도문시 회막동에서 소먹이는 농부로 살았다. 받은 품삯으로 만든 짚신은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고 주먹밥을 만들어 길가 바위 위에 쌓아놓았다. 간도로 건너오는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을 위한 무애행이었다.

수월 스님이 열반에 들기 전까지 사람들은 도인인 줄 몰랐다고 한다. 수월은 1915년 회막동을 떠나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흑룡강성의 수분하(綏芬河)에서 여전히 민중들을 위해 살았다. 그때 금오, 효봉, 청담 등 많은 나라 잃은 스님들이 수월을 찾았다. 나라의 일이 경허의 일이었고, 전봉준의 일이었으며, 수월, 혜월, 만공, 한암의 일이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의 일이었다.

일 년이 지나서(1913년 4월25일)경허의 열반 소식을 듣게 된 혜월과 만공은 갑산으로 가서 김탁을 찾았다. 그에게서 그동안 서당의 훈장으로 마을 사람들과 걸림 없이 살다간 경허 스님의 행적을 듣는다. 봉분을 찾았으나 이미 시신은 백골이 되었다. 애제자 만공이 이별할 때 손수 만들어 주었던 쌈지와 담뱃대가 있어 경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제자는 다비식을 하고 스승의 마지막 남은 흔적을 김소월의 '삼수갑산' 시에 '오고가니 기험(崎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첩첩(山疊疊)이라 아하하' 라고 표현한 그 산천에 뿌렸다.

경허 스님은 열반에 들어 전봉준과 그의 여동생 그리고 우금치 전투에서 쓰러져간 혼백들을 만났을 것이다. 욕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이 땅의 순수한 백성. 저세상에서 다시 만난 그들에게 스님께서는 어떤 법문을 했을까.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발보리심 없인 부처 될 수 없다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㉙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원문〉 그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절을 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기억하니 옛적 수없는 갠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많은 겁 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관세음부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부처님에게서 보리심을 발하였으니 그 부처님이 저를 가르쳐서 문(聞)·사(思)·수(修)로부터 삼마지에 들라 하셨나이다. 처음에 듣는 가운데서 듣는 법류(法流)에 들어가 들리는 소리를 잊었습니다. 듣는 성품과 들어간 소리가 이미 고요해짐에 움직이거나 고요한 두 가지 상태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증진하여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다하여지고 들음이 다했다는 것도 남아 있지 않아서 깨닫고 깨달을 바가 공해졌으며, 공해진 깨달음이 지극히 원만하여 공하고 공해지는 대상이 없어졌으며, 생기고 소멸함이 이미 없어져 적멸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홀연히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어 시방이 뚜렷이 밝아져 두 가지 뛰어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위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본래의 미묘한 깨달음의 마음과 합쳐져 시방 여래로 더불어 자비의 힘이 같아진 것이요, 둘은 아래로 시방의 일체 육도 중생과 합해져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같아졌습니다."

〈강해〉 대승 경전에 등장하는 불보살은 과거 인행시(因行時)에 특정 부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보리심을 발했다고 서술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다. 이근원통을 이룬 관세음보살도 과거 무수겁 전에 관세음 부처님으로부터 보리심을 발했다고 한다.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이 보리심이다.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문(聞)·사(思)·수(修)를 삼혜(三慧)라 하는데 지혜를 터득하는 세 가지 단계라 할 수 있다.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행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관세음보살이 '처음 듣는 가운데서 법류(法流)에 들어가 들리는 소리를 잊었다' 는 것은 듣는 성품에 들어가서 성진(聲塵)인 소리를 잊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듣는 성품을 들어 해탈을 얻었다는 것이다. 흔히 이 대목의 내용을 요약하여 반문문성(反聞聞性)이라 한다. 객진(客塵)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듣는가 듣는 성품을 듣는다는 말이다. 이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고요해져 객관을 의식하는 망념이 없어졌음을 뜻한다. 이른바 삼마지에 든 것이다.

'움직이고 고요한 두 가지 상태가 조금도 생기지 않았다' 는 것은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물론 들리지 않는 고요한 것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듣는 것과 들려지는 것이 다하고 들음이 다했다는 것도 남아 있지 않다' 는 것은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俱空)의 뜻이다. 아공(我空)이 되면 이근(耳根)도 없어지고 법공(法空)이 되면 성진(聲塵)도 없어져 여래장묘진여성만 남게 되는데 이 여래장묘진여성 마저도 공해져 버린다는 뜻이다. 이를 다음 말에 깨닫고(覺) 깨달을 바(所覺)가 공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들음이 다한 것은 소각이 되고 다한 줄 아는 것은 능각이 되는데 능소(能所)가 동시에 끊어졌다는 말이다. 공해진 각(空覺)이 지극히 원만하여 공(空)하고 공해지는 대상(所空)이 없어졌다는 것은 5권에서 설해진 육해일망(六解一亡)의 경지이다. 이런 경지에서 생멸이 없어지고 적멸이 나타나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었다 하였다. 열반경 사구게에서 말한 "생멸이 없어지고 적멸이 즐거움이 되었다(生滅滅已 寂滅爲樂)"는 말이다. 여기서의 적멸은 일심의 근원으로 본래의 적멸이다. 이를 법화경 사구게에서는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모습 그대로다(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하였다.

이근원통(耳根圓通)을 얻은 관세음보살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는 시방 여래와 자비의 힘이 같아진 것이요. 또 하나는 육도의 중생과 더불어 부처님을 비앙(悲仰)이 같아진 것이다. 이는 위로 향하고 아래로 향하는 자비가 완전해졌다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본성으로 비추고 각성으로 제도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㉙ 보시바라밀

원행지와 부동지에서는 암마라식이 쓰이고 선혜지에는 원통식이 활용된다. 법운지에서는 생멸문 전체를 대상으로 보시를 행한다. 원통식이 활용된다. 선혜지는 9지 보살이다. 9지 보살은 생멸문 전체를 덮지 못한다. 그래서 반연(攀緣)이 없는 중생들은 제도하지 못한다. 반연은 육입(六入),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생(生), 사(死)의 과정에서 맺어지는 인연을 말한다. 육입 이전에 진행되는 명색(名色), 식(識), 행(行), 무명(無明)의 과정은 반연이 아니다. 반연이 없는 중생을 제도하려면 역무명색진(亦無名色盡), 역무식진(亦無識盡), 역무행진(亦無行盡), 역무무명진(亦無無明盡)을 행해야 한다. 이 과정이 법운지에서 이루어진다. 역무노사진(亦無老死盡) 내지 역무육입진(亦無六入盡)까지는 아라한도와 선혜지까지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환희지에서 이루어지는 보시 바라밀은 열반상에서 벗어나서 생멸심으로부터 전이되는 그리움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성중생서원도(自性衆生誓願度)의 시작이다. 자성보시라 한다. 해탈지견이 쓰여진다. 이구지에서 행해지는 보시 바라밀은 생멸심과 진여심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일치된 생멸심을 진여심과 동등하게 바라보고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보시바라밀이다. 해탈지견이 쓰여진다. 초지 보살과 2지 보살은 아기보살이다. 해탈지견은 9식이지만 아직까지 식근(識根)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9식의 식근은 암마라식을 통해 갖추어진다. 암마라식은 자기 생멸심을 제도하면서 갖추어진다. 때문에 초지와 2지에서 자성중생서원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암마라식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열반락을 누릴지언정 안, 이, 비, 설, 신, 의가 없는 일면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떨어트려 놓은 생멸심을 제도한 만큼 암마라식이 갖추어지고 암마라식이 갖추어진 만큼 육근이 생긴다. 5지 난승지를 넘어서서 6지 현전지에 들어가야 비로소 암마라식이 원만해진다.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까지는 암마라식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는다. 3지 발광지에서 행해지는 보시바라밀은 진여신의 밝은성품으로 생멸신을 감싸는 것이다. 생멸신이 영혼으로 있으면 영혼을 감싸고, 육체를 갖고 있으면 육체를 감싼다. 이 상태가 되면 생멸신의 상태가 그대로 진여심에 전달된다. 심과 식, 몸의 상태가 포괄적으로 일치된다. 본성으로 비춰주고 각성으로 제도한다. 해탈지견이 쓰여진다. 4지 염혜지에서는 진여심의 무념처와 생멸심의 식업을 일치시킨다. 그 상태에서 생멸심의 식업을 제도하면서 보시바라밀을 행한다. 염혜지에 들어가면 생멸심의 식업이 무념처에 덧씌워진다. 그렇게 되면 진여보살이 생멸식을 갖게 된다. 그때의 생멸식을 무념처와 간극으로 제도해서 원만보신과 법신청정을 이룬다. 이것이 염해지에서 이루어지는 보시바라밀이다. 5지 난승지에서는 생멸심의 심업을 무심처에 복사하고 생멸심의 식업을 무념처에 복사한다. 이렇게 되면 보살의 진여식 안에 생멸식이 갖추어진다. 이 상태에서는 심과 식의 정보가 무작위로 교류한다. 그러면서 번뇌를 만들어낸다. 이때의 번뇌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난승지라 부른다. 보살이 이때의 번뇌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시 반야해탈도의 과정으로 퇴전할 수도 있다. 난승지에서의 보시바라밀은 일치된 심과 식의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다. 간극에 각성을 집중하고 무념처와 무심처를 덮고 있는 생멸심을 비춰본다. 그러면서 법신청정행과 원만보신행, 천백억화신행을 함께 행한다. 제도된 생멸심이 암마라식으로 전환되면서 식근이 생겨난다. 그렇게 되면 번뇌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난승지의 한 과정 한 과정이 모두 다 보시행이다. 일치되었던 생멸심이 모두 제도되면 다시 간극과 무념, 무심이 뚜렷하게 현전한다. 현전지라 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㉙ 불생불멸

성찰, 움직이는 것 아닌 지켜보는 것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말이 있다. 선뜻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유는 시작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문제의 답에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다.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 일으키는 생각은 사유의 폭을 넓히지 못한다. 사유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는 관념을 어떻게 풀어 놓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닭과 달걀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가지게 되면 어떤 논리를 전개하더라도 나중에 자신의 궤변에 자신이 도로 갇히게 된다. 모양과 언어가 사용된다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단정하면 결코 안 된다. 존재성을 밝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는 존재성이라는 범위를 두리뭉실하게 사용한다.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우리의 신체는 많은 변화를 하지만 그 모든 변화된 모습과 상관없이 나로 인식하여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나' 라고 정의하려고 하면 선뜻 '이것' 이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순환 속에 자신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므로 알려고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진리의 이치다. 진리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다. '나' 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순환 속에 나를 있다고도 하지 않고 나를 없다고도 하지 않으며, 안다고도 하지 않고 모른다고도 하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된다.

"무상의 적정을 보아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빼어난 경계를 보았다고 할 수 있네. 빼어난 경계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만약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생멸의 인(因)이 있는 것이니 빼어나다고 할 수 없네. 소위 무상이란 망상이 불생하고 불기하며 불멸하는 것으로 바로 내가 말하는 열반이네."

세상의 사물은 시작과 끝이 없는 순환의 고리에 묶여 있다.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나의 문제만 독립적으로 생겨난 경우는 없다. 꼭 하나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하나의 문제는 모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순환의 고리 가운데에서 찾아다니면서 분별하고 시비할 필요가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는 경우이든지, 전체에서 하나가 빠진 전체일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스스로의 일과는 무관한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적인 대상에 대한 갈구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 라고 하는 자에 대한 바른 성찰이 필요하다. 이때 성찰의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인 생각으로 더듬더듬 두드리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더듬더듬하는 자에 대한 의심이 필요한 것이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방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성찰하는 자와 성찰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다. 성찰하는 자는 움직임이 없는 자이고, 성찰의 대상이 된 자는 움직임이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알고 시작하여야 한다. 움직임이 없는 자는 움직임이 있는 자를 그냥 그대로 볼 뿐이지 어떠한 판단이 없다. 그러나 움직이는 자는 옳고 그름을 시비하고,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별할 것이다. 이때 자신을 성찰하는 자라고 믿고 성찰의 대상이 된 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모든 선택이 즉흥적이라는 것을 안다. 옳음도 없고 틀림도 없고,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말하는 정도일 뿐, 자신의 결정에 특별한 이유도 없다. 알고 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까지 '나' 라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새삼 보게 된다. 이때부터 성찰한다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지켜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움직이고 변화하는 수행에서 움직임이 필요 없고, 변화하는 것이 필요 없고, 아는 것이 필요 없이, 오직 성찰하는 자로서 집중하는 모습에 즐거움이 생긴다. 안팎의 다툼은 사라지고, 무엇을 찾는 마음이 버려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에 물들지 않고, 의심하여야 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모양과 이름에 묶여 있는 오온이 내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서, 오고감이 없는 그것이 분명하였으니, 다시는 생로병사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진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2023년 8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46호 | 17 | 전면광고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 • 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가격협의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 주차가능 • 매가 : 3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받을 수 있읍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가격 : 1억 2천만원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대지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9천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4억 (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밀 양 법 당

- 밀양터미널앞 2층 60평
- 전세 : 1천만원, 월세 45만원
- 비품 : 300만원

010-9343-5657

사 찰 안 내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길 30,
3층 도불사(한국불교태고종)

- 법당 : 63평
- 보증금 5천만원, 권리금 1천5백만원, 월세 210만원, 관리비 30만원
-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스님께서 갑작스럽게 열반하심)

010-3784-0181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 연산동
- 가액 : 시설비 / 천만원
- 보증금 : 1백만원
- 월: 15만원
- 공기 맑고 아늑한 암자

010-4912-3544

포교원 안내

- 통영시 사거리
- 땅 60평 , 건평 36평 2층 건물
- 3층석탑 , 석등
- 마당주차 6대
- 저렴하게 드립니다.

010-8669-5665

사 찰 안 내

- 위치 : 완도군 군외면 당인3길 93
- 총평수 2000평
- 법당 22평, 산신각 6평, 요사체 35평, 25평(두채)
- 가격절충
- 서경보 스님 주석하셨던 사찰

010-5635-9499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사찰 (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대지 155평, 법당 30평, 요사채 50평
- 도심속 1층
- 가액: 9억 (절충가능)

010-6760-8320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북구 만덕동 438번지
- 대지 41평, 100년된 고요한 암자 (도심 근천)
- 하천부지 60평 활용 (1년 사용료 430만원정도)
- 매각금액 : 2억 5천만원

010-8572-2440
010-8411-1217

포교당 (사찰) 안내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30평, 1층 후원, 2층 법당
- 태양광 설치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157-7697
010-4506-5302

사 찰 안 내

- 장호원감곡 KTX 10분 거리
- 종교 계획관리 730평, 대지 250평, 요양부지, 요양원 토목공사 완료 1000평, 차고, 목조단청대웅전 50, 산신각 20평, 찜질방, 휴게소, 주방 종각 , 연못 잔디광장, 각종 탑, 진시사리, 12m 해주관음, 양쪽 대형용, 접견실방 5개, 남녀화장실 3, 요사채 4동,
- 보시고 상담 후 결정

1899-0047
010-5883-2255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 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 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46호 | 18 | 전면광고

맷돌이나 숫돌이 깎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땐가 다 닳아 없어지고,
나무를 심으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크게 자란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선림보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영남범음범패

통범(구암스님)소리를
채보집으로 수업

- 의식 및 사물장단
- 태평소. 대금
- 밀양 : 영원사

010-3156-2211

공양주 구함

살림살 비구니스님 구함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14-15
- 극락사
- 주지 벽송

010-9178-6397

누구나 성공 · 출세 · 부자 안내서
손도사 운명천기누설
개인용 운명천기누설
기질 · 성격분석
소질 · 재능발견
인생방향 제시!
누구나 100억
누구나 100살
한 가정 1권씩 필요!
전세계 1등 운명상담가 손도사 著
약 1천 가지 '운명천기누설'을 세상에 공개!!
역사 이래 가장 귀중한 책입니다
모든사람 필독서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박재완의 포토에세이

청법



날은 또 저물어 업이 되고

예불 기다리는 쇠북 위로

어디선가 날아든 날벌레 하나

매 순간이 기막힌 것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작은 몸 하나가 쇠북을 두드린다.

팔만사천법을 두드린다.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⑬ 칡꽃차

에스트로겐 풍부해 갱년기에 좋은 차

칡꽃은 삼복(三伏) 기간에 피기 때문에 한 여름의 무더위와 습한 기온 속에서 채취하게 된다.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땀을 잘 흘려야 하는 태음인에게는 채취하는 것부터 건강에 좋은 활동이 된다.

특히 이른 봄에 싹터서 나오는 칡순은 '갈용(葛茸)'이라 하고, 태음인의 보약인 녹용(鹿茸)과 생김새도 비슷하고, 약효도 좋다고 한다. 갈용은 칡의 원뿌리에서 나오는 30cm 내외의 것을 채취하는 것이 좋다.

칡은 우리나라 전국의 산야, 계곡, 초원의 음습지에서 자생하는 콩과 덩굴성낙엽활엽 여러해살이 목본이다. 다른 물체를 감아 올라가는데, 덩굴의 길이는 10m 전후로 뻗어 나간다. 꽃은 홍자색 혹은 홍색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총상꽃차례로 잎겨드랑이에서 핀다.

꽃말은 '사랑의 한숨', '쾌활', '치유'이고, 다른 이름은 칡, 칡덤불, 칡덩굴, 갈화 등이고, 생약명은 갈근(葛根), 갈화(葛花)이다.

칡꽃은 자연의 꽃차이고, 뿌리인 갈근(葛根)은 감기에 중요한 한약재이고, 잎은 갈잎밥을 해서 먹을 수 있다. 이용부위는 꽃, 잎, 줄기, 뿌리이며 차 또는 약용한다.

성분과 약성

꽃에는 이소플라보노이드(Isoflavonoid), 사포닌(Saponin), 에스트로겐(estrogen), 다이드제인(daidzein) 등 있고, 뿌리에는 이소플라본(isoflavone) 성분의 푸에라린(puerarin), 다이드제인(daidzein), 베타 시토스테롤(β -sitosterol), 아락킨산(arackin acid), 전분 등이 있다.

칡꽃은 성질이 서늘하고 맛이 달다. 칡뿌리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맵다.

칡꽃은 갈증을 없애주고, 주독(酒毒)을 풀어준다. 이소플라본(Isoflavone)은 비만과 지방간 수치의 증가를 억제한다. 숙취에 의한 구토, 식욕부진, 장출혈 등에 쓴다. 에스트로겐(estrogen)과 다이드제인(daidzein) 등은 갱년기 남녀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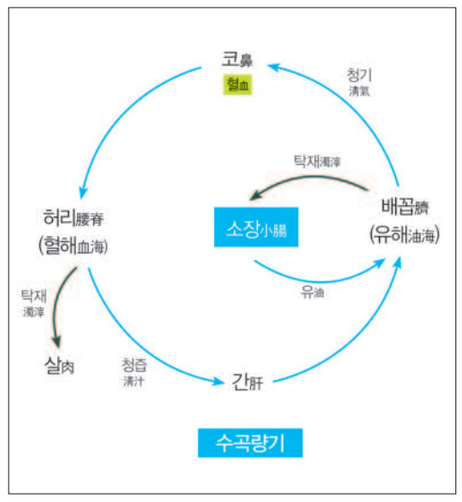
마음 · 기(氣)작용

칡꽃은 간(肝)에 좋은 태음인의 꽃차이다. 맛이 단 칡꽃은 간의 기운을 풀어주어 태음인의 급한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밖을 살펴서 겁내는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칡꽃은 주독을 풀어주고, 항지방간 작용으로 지방간 수치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간(肝)과 직접 관계된다. 수곡량기는 소장(小腸)에서 유(油)가 생성되어 배꼽의 유해(油海)로 들어가고, 유해의 맑은 기운은 코로 나아가서 혈(血)이 되고,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血海)가 되고, 간은 혈해의 맑은 즙을 빨아들여서 원기를 보익하고, 기운을 고동하여 배꼽의 유해를 모이게 한다. 칡꽃은 혈해를 충만하게 하여 간이 혈해(피가 모여 있는 곳)의 맑은 즙을 잘 빨아들이고, 배꼽의 유해를 잘 모이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또 칡꽃의 에스트로겐(estrogen)과 다이드제인(daidzein) 등은 갱년기 남녀(男女)에게 특히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칡꽃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혈해를 충만하게 하여, 간기(肝氣)가 막힌 것을 풀어주기 때문에 안면 홍조, 무기력 등에 도움이 된다.



제다 및 음용

칡꽃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홍자색 꽃으로 피며, 이른 아침 봉우리로 맺혔을 때 채취한다. 칡꽃은 잘 손질하여 중온에서 익힘 덖음을 한다. 고온에서 덖음과 식힘으로 반복해 준다. 고온에서 맛내기와 가향으로 완성한다.

칡꽃차 2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칡꽃차에 대추차를 블렌딩한다. 대추차는 따듯한 기운을 더해주며, 비장을 자양(滋養)하여 식욕부진, 진액 부족에 효과가 있다. 또 불면증, 신경과민에 진정효과가 있다.

칡꽃차 블렌딩은 칡꽃에 함유된 에스트로겐과 다이드제인 성분 등이 대추차와 더불어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을 해소시킨다. 칡꽃을 장기 복용하면 속이 차가워지는데, 대추차를 블렌딩하면 장기적으로 마실 수 있다.

칡꽃차 1g, 대추차 1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음용 사례 (태음인, 남, 54세)

2007년부터 수행과 공부를 위해 녹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녹차를 마시면 허리가 더 아프고, 카페인으로 인한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칡꽃차를 만나게 되었다.

2021년 여름에 칡꽃차를 마시고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칡꽃차를 우림하기 전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너무 좋게 다가오고, 부드럽고 달달한 맛은 기분을 좋게 하였다. 특히 칡꽃차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호르몬이 아주 많아서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50대 이후의 남성들에게 아주 좋은 것 같다. 남성의 전립선에도 좋은 것을 경험하였다.

남성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은 간(肝)의 기운이 막혀서 오는데, 간에 좋은 칡꽃차가 효능이 있는 것 같다. 칡이 간에 좋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기에 이전에 갈근(葛根)을 달여서 먹어본 적도 있지만, 칡꽃차의 향기와 맛은 느끼지 못하였다.

또 꽃차에는 카페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전에 마시던 녹차는 차가운 성질과 카페인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거의 마시지 않게 되었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일일시호일

가까스로 심정지 벗어났지만
디스크까지 겹쳐 고통

한국서 홀로 가족 생계 책임지던 스리랑카 이주민 삼밧씨
병원비 1000만원에 허리 · 무릎 수술…"가족 위해 일어나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박태수의 **알아차림의 파워** ❼ 사랑과 명상은 들숨과 날숨



▶한줄 요약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하나의 완전한 호흡을 이룬다.
우리는 사랑 속에서 들이쉬고, 명상 속에서 내쉰다.

호흡이 주는 생명 · 쉼의 에너지



이 세상에는 명상과 행위가 하나 될 때 완전한 성취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는 해방 후 1947년 미국의 보스톤 마라톤에서 우승한 서윤복 선수의 마라톤 정신을 기억한다. 경기 중 길가에는 마라톤 선수들을 격려하려는 키스 축하객들이 몰려들었지만 서윤복 선수는 이들을 뿌리치고 달리기만 했다. 오로지 목표 외에는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뒤 길가에서 개가 뛰어들어 서 선수의 경기를 방해하여 넘어지면서 다른 선수들보다 뒤처졌다. 그러나 서윤복 선수는 좌절하지 않고 달렸다. 이처럼 서윤복 선수는 어떠한 유혹이나 위기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달리기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명상에도 적용된다.

명상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명상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다. 명상은 마음의 모든 잡다한 내용을 버리고 단지 존재하는 것이다. 명상은 그 상황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다. 명상은 나와 존재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내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린다. 그 장벽들이 사라지는 순간, 문득 전체와 조화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슬방울이 연잎에서 미끄러져 호수 속으로 떨어질 때, 이슬방울은 자신이 호수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는다. 바로 호수 자체라고 느낀다. 명상은 그러한 상태에 존재할 때를 말한다. 서윤복 선수의 모든 행위는 명상상태에 있었고, 그 결과 온전히 한 개체로 존재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붓다가 숲속을 걷고 있었고 더위로 인해 갈증을 느꼈다. 붓다는 제자 아난다에게 우리가 지나온 작은 시냇물에 가서 물을 담아오라고 탁발그릇을 주었다. 얼마 뒤 아난다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마침 우마차가 지나간 뒤라 그 물은 흙탕물이었다.

"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큰 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물을 떠오겠습니다."

그러자 붓다는 "그냥 그곳으로 가서 다시 떠오라"라고 했다. 그리고 "물이 더럽더라도 기다렸다가 떠오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이 더러우면 그저 조용히 시냇가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깨끗해지면 떠오라"고 덧붙였다.

아난다는 다시 그곳으로 가서 아직 깨끗하지 않은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냇가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리고 물이 맑아지자 다시 떠오며 붓다에게 감사했다. 무엇에 감사했을까? 아난다는 깨달았다. 마치 시냇물의 나뭇잎들, 진흙이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듯이 마음속의 상처와 고통, 기억, 욕망들이 고요한 마음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간다.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아픈 줄 모르거나 아픔을 치유할 줄 모른다. 치유는 더 이상 마음에 붙잡혀 있지 않을 때 일어난다. 마음으로부터 분리될 때, 비동일시 될 때, 완전히 벗어날 때, 속박이 끝날 때 치유가 일어난다. 현실을 바라보며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때를 기다리는 힘, 나라고 하는 현실을 초월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존재는 삶의 본질과 함께 하면서 에너지를 보존한다. 보존된 삶의 본질을 지속시키기 위해 명상을 한다.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존재는 간섭하지 않는다. 존재는 영원하므로 급할 것이 없다. 존재는 도덕과는 관계가 없다. 존재에 있어서는 옳은 일도 없고 그른 일도 없다. 존재는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간다. 오로지 자신의 각성과 자각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살아간다.

이러한 존재는 의식의 힘에 의해 행동으로 나타난다. 의식에 따라 개인의 삶의 패턴들이 형성된다. 먼저 개인의 행동이 바뀐다. 의식은 오직 침묵 속에서 성장한다. 침묵은 의식을 위한 올바른 토양이다. 머리가 혼란스러우면 깨어있거나 의식적이 될 수 없다. 의식은 순수하고 변함이 없다. 정말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행동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로 웃을 때 나는 깊은 명상적 상태 속에 있다. 웃으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말로 웃으면서 생각을 멈출 수 있다거나 만약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웃음은 단지 시늉을 하고 있거나 그저 웃음일 것이다. 정말 웃을 때 마음은 사라진다. 웃음은 무심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의 하나이다. 춤과 웃음은 모든 경계를 사라지게 한다.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는 그의 삶을 초월한 알지 못한다. 배추벌레는 보디사뜨바들이다. 보디사뜨바란 나비가 될 수 있는 자, 붓다가 될 수 있는 자, 그 본질로서 붓다인 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신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유일한 방법은 나비들과 교류하는 것이다. 나비들이 바람 속을, 햇살 속을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다. 나비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며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색깔을 보며 "나도 저들과 같아질 수 있을까?"라는 깊은 갈망이 일어난다. 바로 그 순간, 배추벌레는 깨어나기 시작한다. 새로운 과정이 시작된다. 이처럼 우리는 보디사뜨바로서 깨어있는 자와 더불어 수행을 한다면 누구나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듯 붓다(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오쇼 라즈니쉬는 "명상이 중요한 것은 더 고요해지고, 더 이완되며, 더 평화로워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식의 중심에 도달하기 위한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자기 자신의 의식의 중심은 전 존재의 중심"이라고 본 것이다. 명상은 내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나만 전진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명상은 단순히 불행, 고통, 근심의 정반대 상태이다. 명상은 존재가 평화롭게 꽃피어나는 상태이다.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영원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명상적인 마음의 상태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하였다.

한편 오쇼 라즈니쉬는 "공동체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세상 속에 살아라. 그러나 세상의 것이 되지는 말라. 관계하라. 사랑하고 명상하라. 명상과 사랑, 이것은 삶의 양극(兩極)이다. 이것은 궁극적 양극이다. 명상은 홀로 있음의 기술을 의미하고 사랑은 함께 있음의 기술을 의미한다. 완전한 인간이란 양쪽 모두를 알며 가능한 한 쉽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명상과 사랑의 과정은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같다. 사실 우리가 숨을 들이실 때의 작용과 내쉴 때의 작용은 정반대이다. 그러나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하나의 완전한 호흡을 이룬다. 우리는 사랑 속에서 들이쉬고, 명상 속에서 내쉰다. 이처럼 사랑과 명상이 함께 할 때 우리의 호흡은 완전하고 온전하여 전체가 된다.

우리는 호흡을 하되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호흡에 의존한다. 찬찬히 호흡을 해보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다가 들이쉬거나 내쉬는 것을 잠깐 멈춰보자. 그 순간 생명이 멈추는 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만큼 호흡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이쉴 때 "사랑"이라고 말하고, 내 쉴 때 "명상"이라고 말해보자. 사랑은 생명의 에너지요, 명상은 쉼의 에너지다. 호흡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명상을 보다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前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 "
> **속박 벗어날 때 일어나는 치유**
> **존재는 도덕과 관계가 없는 것**
> **의식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
> **"세상 살되 세상 것 되지 말라"**
>
> **물질적 부족 나아진 현대사회**
> **무엇을 추구할지 고민해봐야**
> **오쇼 라즈니쉬 "명상밖에 없다"**
> **명상 · 사랑으로 호흡 완전해져**
> "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불법(佛法)유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청년 불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청년 포교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방송 (월) 12:00 재방송 (월) 20:30, (토) 19:30



광우스님의 소나무
BTN불교TV 최고인기 프로그램!
시대 맞춤형 생활법문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일) 22:00



가족사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대해 살아온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프로그램
본방송 (금) 12:00 재방송 (금) 20:30, (토) 16: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당신 내면의 주인공에 일임하라

여일하게 놓고 가려면

질문 일체를 주인공에 놓는다 다짐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잘 놔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잘 놔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관하면 잘되는데 어떤 때는 관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일하게 잘 놓고 갈 수 있을는지요.

답변 모두 일체 사는 게 공했어요. 찰나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한 그릇이에요, 공한 그릇. 그러니 여러분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당신 내면의 주인공에 일임하라 이겁니다. 그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닌 한 마음의 도리로서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여여하게 하시면서 놓아라 안 놓아라 하는 이런 것도 놓으십시오. 그 생각을 전체 놓으시고 그대로 하세요.

잘되고 못되는 거, 나중에 잘된다 못된다 이런 거는 개의치 말고 용광로에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한다면 재생돼서 나오는 쇠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잘될까, 못될까 이런 건 걱정하지 말아야 이게 진짜 정통으로 놔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해서 놓고 난 뒤에 재차 '아이구, 이렇게 놓는다고 저 일이 저게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용광로에 정통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생돼서 나오는 거는 생각지 말고 주인공에 넣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주 높은 산꼭대기, 제일 높은 데를 올라가는데 자꾸 짊어지고 갈 바가 뭐 있습니까? 자꾸 놓고 가야지, 사람 하나 몸뚱이 올라가는 것도 무거운데 어떻게 자꾸 생기는 대로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올라갈 때는 다 놓고 올라가시라 이겁니다.

조금만 뭐가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이러면은 그냥 자만하고, 또 나쁜 게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미운 게 보이고 또 이쁜 게 보이고 이걸 일일이 욕심내고, 그 아집을 가지고 나라는 조건에서 영 한 발짝도 떼 놓지 못한다면 거기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짐도 무거우니까, 이 몸도 공해서 이것도 놓고 지금 터벅터벅 가는 바 없이 가고 있는데 자꾸 짊어질 게 뭐 있느냐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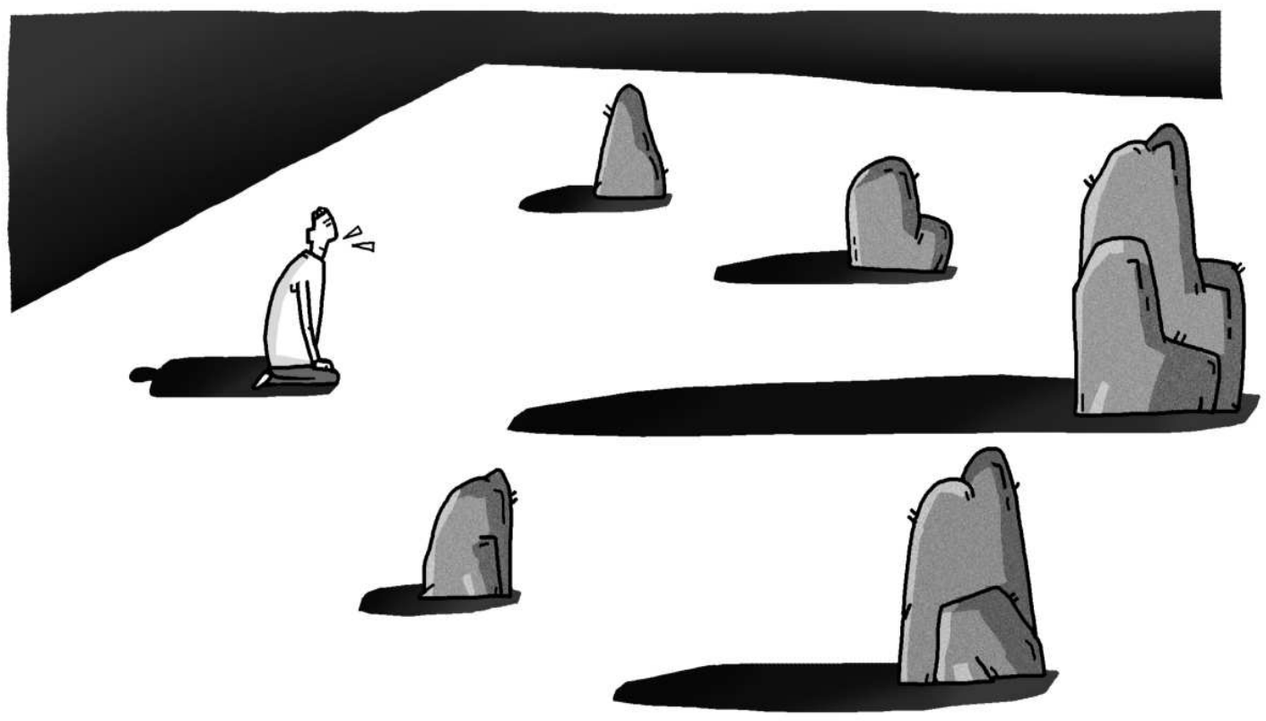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 놓고 가다 보면 맨 상봉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둘러보니까 모두 그 위에서 내려다보이더라 이겁니다. 전체를 볼 때하고 조그만 개별적인 거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 전체가 보이는 걸 보니까 '아이구, 저기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로 인해서 일어나고 저기로 인해서 여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깐,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눌러지고 이쪽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거를 손을 댈 게 없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다 합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죠. 또 동 서가 둘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고, 대승 소승이 둘이 아니요, 어려운 사람 부자 사람 이것이 둘이 아니요, 권세 없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과 둘이 아니요, 항상 뒤바뀌지더라,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다 주워 모아서 담아도 담긴 사이가 없더라. 담긴 사이가 없으니 내려와서는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내놔지더라.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는 데는 천금 만금을 주고도 배우기 어려우니 지금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스스로 익히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서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자비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남의 책을 보고 남의 말을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어서 그거를 때에 따라선 얘길 하고 쓴다 해도 그거는 헛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을 본다 하더라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글을 볼 수가 있고 글을 볼 수 있어야 만법의 근원이 지혜롭게 그 한 글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 여북하면 '백'은 전체를 말하고 '지'는 지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글은 우리가 지금 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다 좋다 하는 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하여튼 망상이라는 것도 놓고, 우정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놓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이놈의 게 왜 안 되나?' 모질음을 쓰고, '이게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데 왜 안 되나?' 이러면지 네가 가다가 "아이고, 다리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가나?" 하니까 딱 서서 못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러 드려도 놓지 못하고 놨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을 해서 '아이고, 이거 또….' 하고 방방방방 뛰고, 그렇게 뛸 때 또 놓으라고 하니까 '아이구,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는데도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는 생각까지도 놔야 될 텐데 그걸 놓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 그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짜부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살죠." 이러는데 그 사람은 아주 살게 돼서 괜찮고 아, 이건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왜 놓는데도, 그렇게 맡기는데도 안 되느냐. 주인공, 살려 주시오.' 이러면 오히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질문 생활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닥치는데 마음공부를 한다면 이 난관들을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답변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가난과 병고와 우환 등 여러 가지죠. 자식들을 이끌어 가는 데도 그렇고 또 부모가 자식들을 이끌어 가려면 움죽거리는 그 생활도 그렇고, 자기 몸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괴로움이 한두 건이 아니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 도리를 알고 공부한다면, 아주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도리 또 생산적인 도리, 개발적인 도리를 공부하신다면 이것은 불가사의한 법으로서 그대로 편안하게, 언어조차도 붙지 않는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해 갈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바깥에서 유전성으로 오든 안에서 인과로 인해서 벌어지든, 영계가 들고 뭐, 안팎으로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생활을 하다가도 뭐, 회사가 망했다든가 또 공부를 하다가도 그냥 지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가정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다 물리치고 녹이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을 못 한다.' 하고선 거기다 딱! 맡겨 놓고 지켜보는 그것이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관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켜보고 관한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습이 녹아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입

☞ 22면으로 계속



잘된다 못된다 개의치 말고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세요

☞ 21면에서 계속

력입니다, 입력!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 오는 대로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게 돌아간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자동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이제는 둘이 아니게 내 주인공에, 아들이 아파도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해 나가서 완벽하게 이게 선다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랬죠?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죠. 둘이 아닌 까닭에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병을 고쳐주려면, 예를 들자면 특히 정신질환은 더합니다.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붙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묘한 생각이 있어요. '에이구! 이거는 무슨 어머니 조상이 붙었고 무슨 누구 영계가 죽었는데 여기 붙어서 이럭하고.' 아, 요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떠나야 할 텐데, 놔야 할 텐데 고런 생각들을 하니 이게 떨어집니까, 네? 뭐가 붙었습니까? 물 한 그릇에다 물방울 하나 넣은 거와 같은데, 항상 그렇게 일러 드려도 그것을 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이렇게라도 하겠습니까. 딴 영계가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 컵의 물을 다른 컵의 물에 합치면, 그럼 물 한 그릇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이 들어와서 딴 영계가 내 집 주인 노릇을 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모두 한 그릇에 있어요. 같이 먹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 치운다면 상당히 좋을 것을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거기 한데 들어갔으니까 천 명이 들어가도 두 명이 들어가도 한 명이 들어가도 '아이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고 우리 딸이 이렇고 무슨 내가 이렇고 무슨 누구가 이렇고' 이런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왜냐? 여기 물컵에 들어갔으면 벌써 한 그릇이란 말입니다. 한 물이에요. 영에다가 영을 넣으니까 몇이 됩니까, 예? 그냥 영이죠? 허허. 스무 개를 넣으면 또 더 두드러집니까? 그냥 영이죠? 그런데 거기 뭐가 붙었다고 합니까? 참 이상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 십 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고통을 받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각각 보십니까? 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는데 왜 각각 보시느냐 이겁니다. 요거는 내가 꼭 말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다짐을 한 거거든요, 하도 애를 쓰니까. 그래서 영과 영이 열 개가 한데 합쳤어도 둘이 아닌 까닭에 아무가 들어왔더라도 주인은 주인 아니겠는가. 그러니 주인공이에요, 그냥. 당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주인공 아닌가. 그러니 '이 몸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당신밖에 없어.' 뜻으로다가 속의 주인공을 이렇게 탁 잡아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시식을, 제사를, 천도를 수백 번 드리는 것보다 그 한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딸 흘리고 돈 벌어다가 허탈히 쓰는 법을 버리고 돈 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돈 버는 것만 배우지 마시고 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르게 써야지 올바르지 않게 쓰는 것은 귀신 놀음이나 한가지고 도깨비장난이나 한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못사는 것도 여러분의 차원 때문입니다, 모르는 차원.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차원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열 명이 들어갔어도 당신이 바로 주인공 아니겠는가!' 하고 주인공만이 속의 뜻을, 말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뜻으로서 주인공만이, 당신만이 이 애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저 만날 적마다 그렇게 해 준다면 또 만나지 않을 때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먼 데 있으나 가깝게 있으나 똑같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를 달린대도, 탐험을 한대도 둘이 아닌 까닭에 마음은 그저 어디도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산이 높아서 못 넘는 게 아니고 물이 깊어서 못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은산철벽이 두꺼워서 못 뚫는 게 아닙니다. 사방은 툭 터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넉넉하면 심봉이 돌아가는 것이 녹이 안 슬고 착착 돌아갑니다, 기름이 주어지니까. 넉넉한 마음은 기름을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심봉에 기름을 주는 거와 같아요. 그리고 넉넉지 못한 사람, 소견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게 자꾸 돌리질 못하기 때문에 녹이 슬고요. 그리고 뻑뻑해요.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도 기계를 잘 아시죠? 만약에 차를 끌고 다니는 데도 바퀴가 영 굴러가지 않아서 그냥 두면은 그 중심인 심봉이 잘 안 굴러가게 되죠. 양면으로 딱 조여 놓고선 이게 그냥 돌아가도 이 중심 심봉은 통 움죽거리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들만 돌아가죠. 바깥에 붙어 있는 그 다섯 가지의 수레바퀴가, 즉 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물바퀴라고 해도 좋고 불바퀴라고 해도 좋고 보통 그런 수레바퀴라고 해도 좋죠. 그렇게 돌아가는 이 자체, 바로 그것을 바깥에 서서 돌릴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걸 그렇게 입력을 들어오는 대로 용도대로 잘된 건 감사하게 입력을 해 놓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한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해 봐.'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해 놓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이 신경 쓰여요

질문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꿈에서도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좋게 돌려놓으려고 하는데도 기분 나쁜 꿈을 꾸면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제가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중심 잘 잡고 갈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꿈도 꿈이고 현재 생시도 꿈입니다. 저 달이 말입니다, 강에 비쳤다 이겁니다. 강에 비쳤을 때에 그 강에 비친 달은 하늘에 있는 달과 둘이 아니면서 그림자예요. 내가 지금 몸뚱이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내가 마음으로 요렇게 생겼고 내가 요렇게 있다 하는 걸 알고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 컴퓨터에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는 항상 그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서 하루 온종일 살다가 들어왔는데도 한 시간도 안 됐더래요, 온종일 살았는데. 꿈에서는 하루 온종일 살았답니다. 그랬는데 저녁에 밥 얼른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깨 보니까는 한 시간밖에 안 됐더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 모습을 지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는 일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모습 없는 모습을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는 빠르기가 여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서도 없으니까, 진실은. 그러니 이 육신을 끌고 하루 종일 산 거하고 꿈에 한 시간을 산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꿈을 꾼다고 하는 것도 모두, 생시나 꿈이나 자기의 모습이 다니는 거니까 자기에다 놔라 이겁니다. 진짜 씨가 있기 때문에 콩나무가 나고 잎과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거기다가 그렇게, 놓을 데 없는 데다가 놓을 게 없는 것을 놔라." 하는데 진실히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시에 만나면 일가친척이고 누구고 간에, 애들의 친구든지 내 친구든지 또는 어떤 회사든지 상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천차만별로 살아나가는 데 거기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사람마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각각 보니까 상대가 생기죠? 그러니깐 업보를 짓는 겁니다, 상대로 보니까. 우리가 여여하게 살면서도 상대를 마음으로는 둘로 보지 않아야 그게 업보가 되지 않는데, 업보에 끄달리지도 않을 거고 말입니다. 현실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꿈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고 이것도 꿈이요 저것도 꿈이라면, 꿈에 또 끄달리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진짜의 마음 그 자체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겁을 거쳐오면서 별의별 모습을 다 가지고 자기가 살던 그 습성이 모습과 함께 자기한테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짐승이 와서 나한테 덤볐다, 또는 뱀이 나한테 덤볐다, 꽃이 화창하게 핀 걸 봤다, 또 무슨 도둑이 들었다, 강도가 들었다, 강도가 나를 죽이러 쫓아다닌다 이런 문제들이 여간 많지 않죠. 또 꿈에는 훨훨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구요.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죠. 콩 심어서 콩나무가 났으니까 그 작년 콩은 없어진 거죠, 아주. 없는 거죠. 그런데 미생물이 있기 이전부터, 또 미생물이 생겨서 오기까지 그것이 수백 수천 년, 수만 년 그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을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왔어도 온 사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억겁을 거쳐 나온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으로서 살던 그 습이 남았단 얘깁니다. 짐승으로 다니던 습과 천차만별로 거쳐 온 그 습이 남았단 얘깁니다.

살아온 것이 자기 마음의 컴퓨터에 쟁여 있으니까 그것이 때로는 습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자꾸 인과응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는 대로 그냥 주인공에 모두가 둘이 아니게 놓았을 때에는 다 녹아 버립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그 인과응보가 다 녹아 버리고 유전성이 다 녹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습성을 기르지 않았더라면, 기르려고 그래서 기르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날까지 오면서 습성을 놓고 왔더라면, 지금 현재에 놓고 가는 건데, 그대로 여여하게 놓고 가는 것을 홀연히 깨달았다면, 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날까지 그 습을, 남은 것도 없고 앞으로 또 쟁여질 것도 없고 전자에 쟁여진 것도 없고 이랬을 텐데 아니, 마음으로 지어서 습에 의해서 그냥 착착 쟁여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어머니 만날 때 아버지 만날 때, 이런 일 할 때 저런 일 할 때 나투어서 돌아가듯이 그런 업보도 인연 따라서 올 때에, 그렇게 자꾸자꾸 나투면서 지은 것이 진화…, 즉 '발이 없어. 발이 없으니 어떻게 되지?', '아니, 내가 네 발로 걸어 다니기보다 서서 다니는 게 편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진화력이거든. 그 생각에 의해서 진화되는 거지 몸뚱이로 다니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도 다 꽁지 떨어진 자리가 있죠. 방뎅이 좀 보라구요, 꽁지 떨어진 자리가 없나.

이 세상의 모두가 다 그렇게 거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습을 마저 벗기 위해서, 끄달리지 않고 마저 벗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큰 고(苦)든지 작은 고든지 고는 고니까. 만약에 깨달으면 고가 아니지만 깨닫지 못하면 고예요. 항상 고예요. '나는 뭐, 고가 될 것도 없어. 그저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놓고 사니까.'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진짜로 깨달아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속상한 일이고 자꾸 끄달리죠.

그런데 한 소식을 얻은 사람들은 금방 일어났다가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금방 일어났다 금방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없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거하고 한 소식, 뭐, 한 소식이라는 게 두 소식이 있고 세 소식이 있어서 '한 소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도 우리가 애 적이 있고 젊을 적이 있고 늙을 적이 있듯이, 한 몸이 그렇게 자꾸 변해서 가듯이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두 소식이 한 소식이고 세 소식이 한 소식이 돼야 됩니다. 그 한 소식마저도 없어서 내세울 게 없어야 열반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계단 없는 계단을 걸어야 하고 걸을 게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 자꾸 짊어지고 갈 바가 뭐 있습니까.
> 몸뚱이 하나 올라가는 것도 무거운데
> 다 놓고 올라가시라 이겁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청정한 승가와 법다운 불교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깨달음 이끌어내는 수행공동체
불교의 토대는 불 · 법 · 승 삼보
계율 따라 출 · 재가 역할 부여
바른 수계가 바른 교단 만들어

변함없이 유지되는 수계의 가치
현재는 단일계단이 정체성 계승
편리함 좇아도 정체성은 지켜야
불교의 내일은 오늘에 달려있다

불교는 2,600년 전 고대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다. 종교라고 하지만 창조주인 신에게 초월적 힘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르게 알고 스스로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수행을 하는 수행공동체다. 그래서 불교는 현실에서의 깨달음과 그를 통한 삶을 중시한다.

이러한 불교의 토대는 불법승 삼보에 있다. 이중 사람으로 이루어진 승보의 존재야말로 불교의 가장 큰 힘이며, 2,600년이라는 역사를 유지해준 불교의 기둥이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 제자이고 깨달음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로서 승가의 일원이다. 그리고 승가의 일원인 출가자와 재가자가 불법을 따르고 불교적 삶을 살 때 법다운 불교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럼 출가자와 재가자가 불법을 따르고 불교적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토대는 무엇일까? 바로 계와 율이다. 흔히 계율이라고도 하지만, 계와 율의 역할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계율 그 자체로 불리는 것은 이 둘이 불법을 지켜주고 불교를 이어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출가자와 재가자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렇기에 사부대중이라고 하여 각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계율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주는 것이 수계다.

불교에서는 칠중계라고 하여 비구, 비구,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의 출가자 계와, 우바새, 우바이의 재가자계가 존재한다. 이는 칠중이 각각 역할이 다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현하여 수행에 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제 막 출가한 사미, 사미니에게는 다소 가벼운 사미십계를 주어 승가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이후 구족계를 받아 정식 출가자가 되어 금욕과 철저한 수행의 삶을 살게 한다.

수계는 불교인이 각자의 삶에 맞게 계를 받아 불교적 삶을 사는 토대이기에 올바른 수계가 이루어졌을 때 올바른 승가가 형성된다.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과 조사스님들이 지계청정(持戒淸淨)을 강조하며 바르게 계를 지닐 때 승가가 청정해진다고 하신 것이고 그때 청정승가(淸淨僧伽)가 지켜지는 것이다. 또한 계는 불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힘을 주는 것이기에 계행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수행을 닦는 모습이 된다. 즉 청정한 승가와 법다운 불교는 올바른 수계를 하고 그 계에 따라 자신의 삶과 수행을 닦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계율과 수계는 율장과 경전에 의거하여 성립된 것이다. 그렇기에 성전의 가르침이 그대로 실천된 것으로 승가의 오랜 역사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유지되고 모든 불교인들이 지키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불교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처승으로 오염된 일제불교에서 다시 승가를 되살리기 위해 근현대 조사스님들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수계의 부활이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의 계단위원회를 설립하여 단일계단으로 마침내 승가를 되살린 것이다.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출가교단으로 대표된다. 출가자를 출가자로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구족계 수계이고, 그로 인해 지금의 한국불교가 증명되고 어느 불교국가에서도 승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에서도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언제나 그곳에 불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부처님이 제정하시고 경율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계율이 지켜주고 있다.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람의 존엄성은 바뀔 수 없듯이 불교의 많은 것이 변해도 불교인의 정체성은 바뀔 수 없다.

불교의 내일은 오늘의 모습에 있다.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재가자는 재가자답게 각자가 수계한 계를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승가가 청정해지고, 불교는 법다워지며, 우리는 삼보에 귀의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시간도둑이 되지 마라

우리는 일생의 삼분의 일은 잠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잠은 내일을 위한 휴식이기에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나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자면 좋습니까?"

저마다 생체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꼭 몇 시간을 자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학자들은 7시간이나 8시간 정도 자면 좋다고 합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잠을 아껴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야겠지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울 정도로 잠을 많이 자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일어나 앉아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을 맞아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반드시 후회한다."



그림 · 최주현

불가에서는 잠을 수마(睡魔)라 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큰 장애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어와 목탁도 수행자들의 잠을 경책하기 위해 만든 도구입니다. 3개월 동안 안거에 들어가면 마지막 일주일은 '용맹정진'이라 하여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합니다. 가부좌하고 참선수행을 하는 거지요. 정진을 가멸차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잠을 자고 싶어 하는 몸을 항복받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잠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극복하기 힘든 장애 중 하나입니다.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공부를 상실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사라진다고 하여 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황제에게나 거지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가에 따라 삶의 행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들 잘 때 같이 자고 남들 놀 때 같이 놀면 남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은 머리에 벽돌을 매달아 놓거나, 뾰족한 송곳으로 자신의 몸을 찔러가면서 공부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쓴다는 것은 스스로가 시간도둑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갉아 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진우 스님 취임 300일에 부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00일을 맞았다. 진우 스님은 어김없이 108배 정진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취임 200일에는 전남 · 광주 지역의 청소년들과 소통 행보를 했다면, 이번 300일 차에는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만났다.

7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지하1층)에서 열린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문화 토크 콘서트'는 최근 한국불교계의 화두가 된 '대학생 · 청년 전법' 진흥을 위한 진우 스님의 '광폭 행보'이기도 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진우 스님이 평소 대중들에게 강조해 오던 명상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종단 내실 다지기와 한국불교 중흥 불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종단 직영 요양병원인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을 개원해 승려복지사업의 새 장을 열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를 감면하고 산문을 열어 그간의 난맥들을 풀어냈다. 또한 과도한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해결과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을 10%로 완화하는 등 불교 규제를 개선한 것도 성과다.

진우 스님이 취임하며 국민에게 제안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명상 수행법 개발 및 명상센터 건립 등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돼야할 과제다.

이 역시 종단 싱크탱크인 미래본부를 발족하고, 해당 부서가 긴밀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종도들의 기금 답지도 이어지고 있다. 진우 스님이 보여준 300일의 행보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걸음들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걸음들의 여정이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실사구시' 불교학이 필요한 시대

지난 2011년 창립해 반야학술상을 제정 · 운영하고 학술대회와 대중강연을 통해 불교학 진흥에 힘써 왔던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새로운 불교학술지를 창간한다고 한다.

'프라즈냐'로 명명된 학술지는 산스크리트어로, '반야(般若)'를 의미한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의 학술지인 '프라즈냐'는 기존 학회 학술지와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

학술지 '프라즈냐'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기후위기, 전쟁, 질병, 계층 갈등과 기계문명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불교에서 찾아보는 기획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불교사상 전반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는 논문을 발굴하는 것도 학술지의 주요한 기획이다. 오는 10월 중 창간호가 발간될 예정으로 9월 30일까지 첫 수록 논물들을 모집하고 있다.

불교계 여러 학회에서 운영하는 학회지는 전통교학, 역사 등 불교학의 종합적인 분야를 다룬다. 그러다보니 현대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시대 조류들을 불교적으로 고찰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연구논문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와중에 기후위기, 계층갈등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전문 학술지가 창간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 주제도 당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간다.

반야의 완성은 연기를 아는 것이다. 이는 팔정도의 정견(正見)의 시작이고,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새로 창간되는 '프라즈냐'가 한국사회를 정견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